

동일본 대재해로부터 1년

이와키 시의 기록



대재해로부터 1년

작년 3월 11일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 1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재해로 인해, 작고 하신분들에게, 재차 애도의 뜻을 표하는 동시에, 재해민이 되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재해에, 전국민, 나아가서 세계의 많은 분들과 기업, 단체등으로부터, 의연금과 구원 물자의 제공, 인원 파견 등, 따뜻한 지원을 받는 동시에, 시내외의 자원봉사자분께서도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동일본 대지진은, 대지진, 쓰나미, 그리고 원전 사고가 겹쳐진 세계에서 유례 없는 복합 재해로서, 본 시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재해 후에, 신속하게 시 재해 대책 본부를 설치하고, 한시라도 시민생활의 안정과 재해 받으신 분들의 생활 재건 토대를 만들기 위해, 24시간 체제로,

식료품과 의약품 등 생활 필수품을 확보 및 가솔린 조달, 이재민분들을 수용하기 위한 피난소 설치·운영, 게다가 원전사고의 대응 및 안정 요오드제 배포 등, 매일,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복수 현상 대응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해 발생으로부터 몇주 동안은, 시민의 생명·재산을 지키기 위해, 제한된 시간과 정보안에서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하면서 재해 대응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이재민분들의 생활 지원에 최우선으로 임하는 동시에, 부흥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 작년 12월에는, 부흥을 위한 대처로 「부흥 사업 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 실현을 위해, 부흥 대처

「일본 부흥을 이와키서부터」라는 구상 아래, 「시민 여러분의 안전·안심 확보」 및

「재해전보다 더욱 더 활력과 생기가 흘러 넘치는 도시 만들기 위해, 세계에 부흥 재생 모델이 될 수 있는 이와키를」 목표로 하여, 전신전력을 걸쳐 대처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대미문의 대재해에 따른,

본 시의 피해 상황 및 복구 활동, 또한 부흥을 위한 대처 등에 대해, 잊지 않도록, 본지를 간행하였습니다. 본지에서 전부를 표현할 수는 없었지만, 향후 방재 대책 마련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본지의 편집을 맞이하여, 협력해 주신 관계자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키 시장
와타나베 다카오

목 차

◆ 개요

이와키시에 대해	1
동일본 대재해에 대해	2

◆ 기록편

1 재해 발생으로부터

시의 피해 상황	3
재해 대책 본부의 활동	4
피난소 설치· 운영	8
소방본부의 활동	9
의료 기관의 동향	10
국내외로부터 받은 지원 물자	11
의연금의 수락과 배분	12
대량의 재해 쓰레기 발생	13

2 큰 영향을 받은 사회 기반

고갈된 가솔린과 물자 부족	14
대규모 단수로부터 전력적인 복구	15
라이프라인 복구에 일정	16
곳곳이 파괴된 도로	17
교통기관 및 항만의 상황	18

3 눈에 보이지 않는 방사선과의 싸움

방출된 방사선에 대응	20
-------------------	----

4 복구, 그리고, 부흥에

주택 재건을 위하여	23
행정기관으로부터의 인적지원	24
자원봉사의 활동	25
시내 공립소· 중학교의 재개	26
거짓정보의 피해 불식을 위해	27
부흥을 향한 발걸음	28

5 재해로부터 주요 경과

재해로부터 주요 경과	32
-------------------	----

◆ 사진편

재해의 상황	38
직하형 지진의 재해 상황	45
힘내요 ! 이와키	46
진혼제	48

• 본지 기재에서, 특별한 기재가 없을 경우는, 2012년 2월 1일 현재 상황으로 기재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호 표기가 없는 것은, 전부 201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 본지에 게재 된 사진에 대해서는, 본지 작성에 사용 허가가 된 것이므로, 무단으로 복제· 출판· 판매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모두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와키시에 대해서

1 면적·인구

- 면적 : 1,231.35km²
- 인구 : 332,955인
- 세대수 : 127,313세대
- (※ 2012년 2월 1일 현재)



2 시의 위치·지형

이와키시는, 후쿠시마현의 동남단에 위치하여, 남단은 이바라키현, 동쪽은 태평양으로 접해 있고, 한난차이가 비교적 적어서 온난한 기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지형은, 서쪽의 아부쿠마 산지 (해발고도 500 m ~ 700m) 에서 동쪽으로 완만하고 낮은 평탄지를 형성. 나츠이가와 및 사메가와의 중심으로 하천이 시의 지역인 서쪽에서 동쪽으로 관류하여, 태평양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또한, 태평양을 접한 해안선은, 남북 약 60 km에 걸쳐 하얀 모래사장과 푸른 소나무의 가로수, 암초가 펼쳐진, 「이와키7대 해안」 이라고 불리 정도로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3 후쿠시마현내의 원자력 발전소

후쿠시마현의 하마도오리 중북부 소소우지방에는, 도쿄 전력(주)의 상용 발전로(합계 10기)가 운전 중입니다.

그 발전량(909.6만 Kw)은, 일본의 원자력 발전 전력량의 약 20%를 차지하여 일본의 많은 전력 공급지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1)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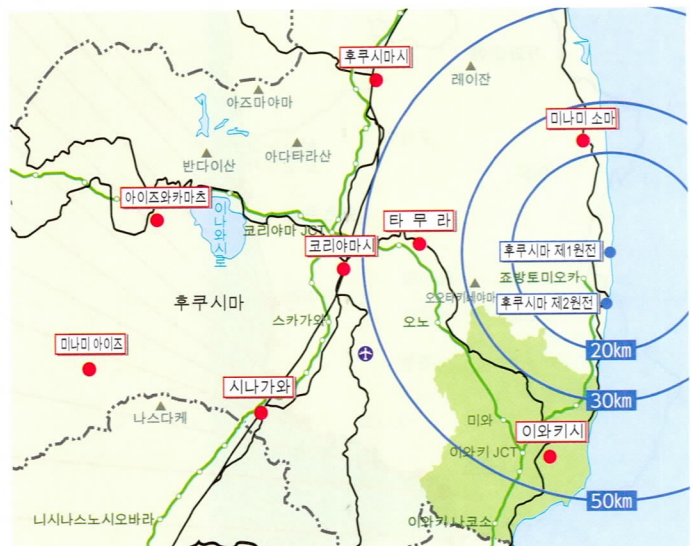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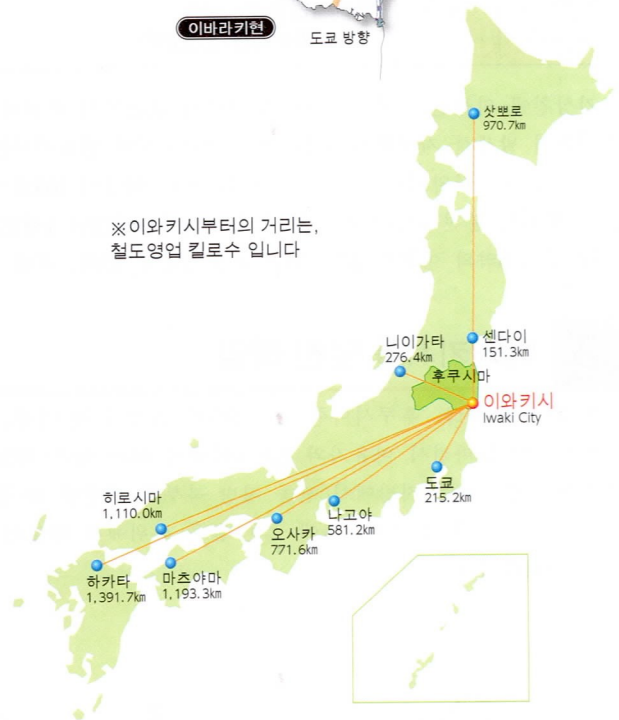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이하「후쿠시마 제1원전」)는 후타바군의 오쿠마 지역과 후타바 지역을 입지하여, 도쿄 전력이 처음으로 건설·운전한 원자력 발전소로서 1971년 3월에 1호기를 운전 개시하여, 합계6기의 발전 설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와키시는, 후쿠시마 제1원전 으로부터 약 반경 30 km에서 70 km권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 후쿠시마 제2원자력 발전소

후쿠시마 제2 원자력 발전소(이하「후쿠시마 제2 원자력 발전」)는, 후타바군의 나라하 지역과 토미오카 지역을 입지하여, 1982년 4월에 1호기를 운전 개시하여, 합계 4기의 발전 설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와키시부터의 거리는, 철도영업 킬로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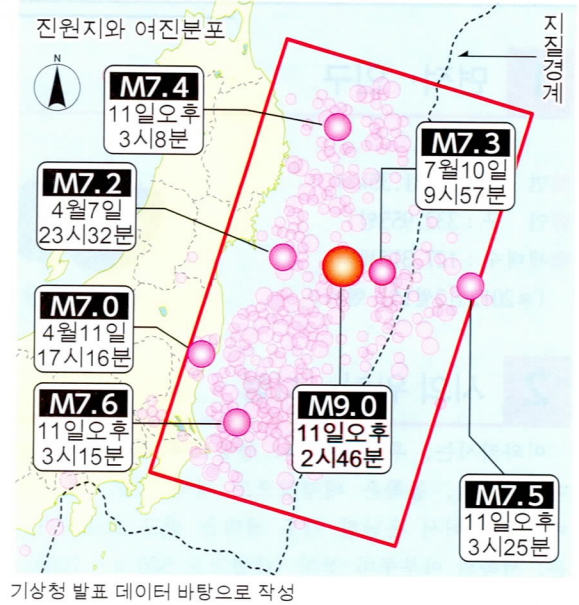


현내의 원자력발전소 위치·동심원 표

동북지방 태평양바다 지진에 대해서

1 2011년 동북지방 태평양바다 지진

발생 일시	2011년3월11일14시46분	
진 원	산리쿠 앞바다 (북위38.1도, 동경142.9도, 오지카반도의 동남동130km부근) 깊이24km	
규 모	마그니튜드 9.0	
그외기타	단층의 크기 : 길이 약450km, 너비 약200km 단층의 반동의 양 : 최대20 ~ 30m정도 진원 직상의 해저 이동량 : 동남동에 약24m이동, 약3m웅기	
각 지진도 (진도6강 이상)	진도7	미야기현 북부
	진도6강	미야기현 남부· 중부, 후쿠시마현 나카도오리· 하마도오리(※), 이바라키현 북부· 남부, 토라기현 북부· 남부 (※이와키시는, 진도6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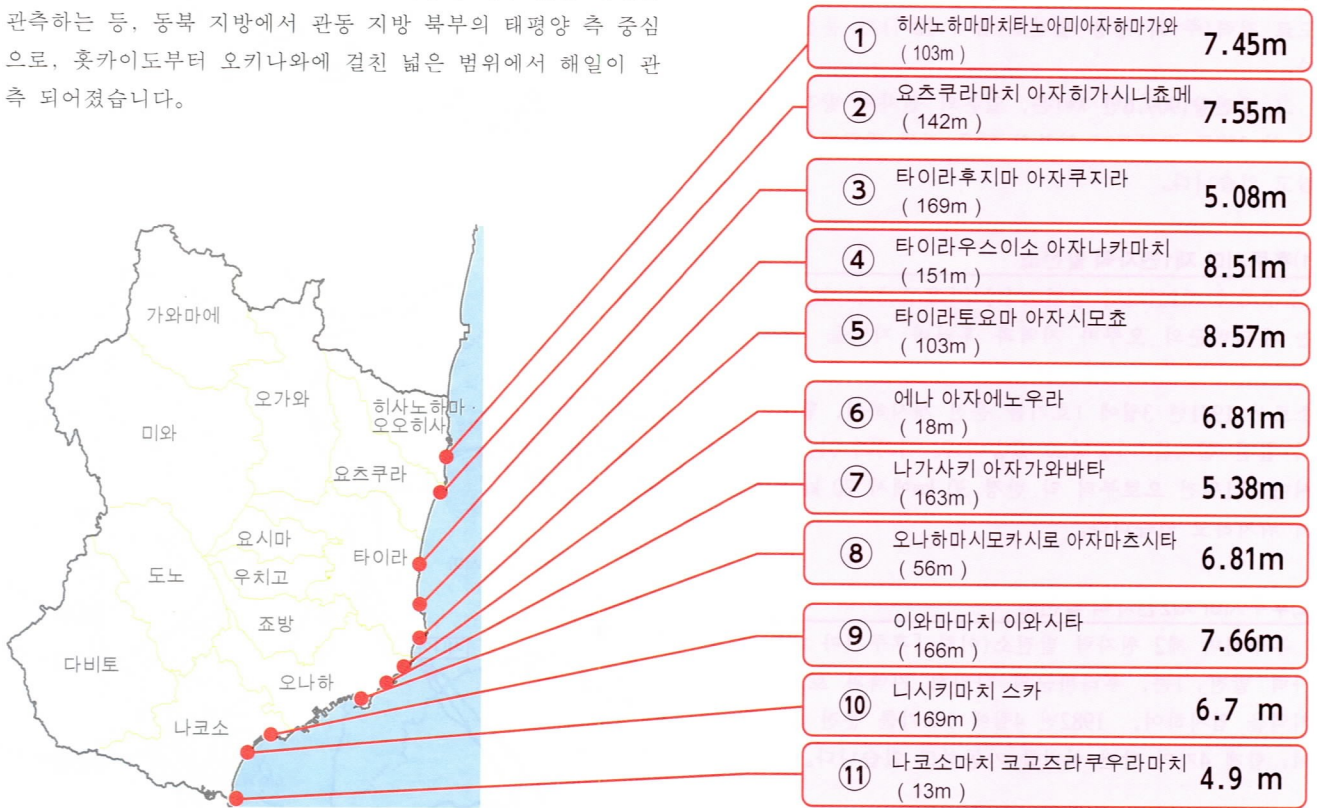


기상청에 의하면, 이 지진은, 동북에서 관동까지 이어지고, 태평양 플레이트와 육지 플레이트의 경계의 넓은 범위에서 발생한 지진이라고 합니다. 다른 지역 범위에서는, 남북 450km, 동서 200km, 에서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지진으로, 이와키시에서는, 진도 4이상의 여진이 169회가 발생하고, 최대 진도 6약이 관측되었습니다. 또한, 지진 활동은 본진 여진형으로 추이되고 있어, 2012년 1월10일 현재도 최대 진도 6이상의 여진이 2회, 최대 진도 6약의 여진이 2회, 최대 진도 5강이 10회, 최대 진도 5약이 30회, 최대 진도 4가 175회가 발생하였습니다.

2 이와키시를 덮친 해일

이 지진에 따라, 후쿠시마현 소우마에서 높이 9.3m 이상, 미야기현 이시노마키시 아유가와 8.6 m이상의 매우 높은 해일을 관측하는 등, 동북 지방에서 관동 지방 북부의 태평양 측 중심으로, 홋카이도부터 오키나와에 걸친 넓은 범위에서 해일이 관측 되어졌습니다.

※침수고는, TP(도쿄만평균해면)에서의 높이
※()안에는, 해안에서 측정지점까지의 거리



공익사단 법인 토목학회 「동북지방 태평양바다 지진에 의한 해일 합동 조사 그림」 (<http://www.coastal.jp/tjtj/>) 에 의한 속도데이터 (2012년2월3일 참조)

이와키시의 피해 상황



해일에 의해 떠내려 온 승용차가 나가사키초등학교 교실 안쪽까지 (3월12일)



떨어진 도서로 통로가 막혀진 이와키 종합도서관 (3월12일)



사면이 붕괴되어 도로가 완전히 막힌 우치고우치지역의 미야자와 히루우치내선 (4월26일)



히사노하마 카게이소에서는, 해일에 의해 파괴된 수도관이 돌출되었다 (4월14일)



오나하마 시모카지로 보육소는 해일로 전체가 파손되었지만, 보육사의 적절한 피난유도에 의해 어린이들 전원은 무사했다 (4월23일)



요츠쿠라 시영주택 우메가오카 단지에서는 대지 일부가 붕괴 (4월27일)

●동일본 대지진에 의한 피해 상황 (2012년2월1일 현재)

구 분		피해수	비 고
인적피해	사망자	310명	중앙서 관내 267명, 동서 관내31명, 남서 관내12명
	행방불명자	37명	중앙서 관내 29명, 동서 관내 4명, 남서 관내4명
주거피해	전괴	7,640채	계80,602채 ※현재도 조사중
	반괴	29,923채	
	일부 손괴	43,039채	
비주택 피해	공공 건물	118채	본청사, 지소등
	그외 기타	2채	관광 물산 센터, 컴퓨터 카렌지
그외 기타의 피해	문교시설	200개소	공립소중학교, 공민관등
	병원	27개소	민간병원26개소, 공립병원1개소
	도로	2,546개소	
	교량	28개소	
	하천·수로	164개소	
	토사붕괴	326개소	
	수도	3,497개소	
	하수도 등	1,131개소	
	농업토목 등	316개소	
	산림길·산림	196개소	
	농업관계시설	4개소	중앙 도매 시장 등
	시영주택	59단지	토요마 단지 등
	공원·녹지	72개소	단고자와 공원, 미사기공원 등
	사회복지시설	133개소	보육소, 고령자 시설 등
	소방시설	139개소	소방본청, 소방단 시설등
	소방차량	34대	
	그외 기타	37개소	쓰레기 처리 센터, 운동광장 등

재해 대책 본부의 업무

2011년3월11일(금)14시46분, 산리쿠 앞바다를 중심으로 하는 국내 관측 사상 최대 규모의 대지진 (마그니튜드9.0) 이 발생. 시는, 지진 발생 직후 14시 50분에 재해 대책 본부를 설치하여, 24시간 체제로 재해 대책 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1 재해 대책 본부 설치

시장은, 지진 재해 발생 직후 14시 50분에, 시 소방 본부 청사내에 재해 대책 본부를 설치. 동시에, 피난소 개설 및 식료, 침구등의 조달에 관한 지시를 실시 했습니다. 동일 16시 30분에는, 후쿠시마현 지사에 대해, 자위대 파견을 요청. 동일 23시에는, 코리아마 보다 육상 자위대 제 6고사 특과 포병대대가 도착하여, 재해 지원 활동을 개시하였습니다.

지진 재해 발생으로부터 하룻밤이 지난 그 다음날 12일 4시 10분, 일본 적십자사 후쿠시마현 지부에 대해, DMAT(재해 파견 의료 팀)의 파견을 요청. 한편, 시내 제빵 업자나 JA이와키시등의 협력으로, 피난소에 식사 공급(삼각김밥)이나, 지원 물자가 도착하는대로 피난소에 배송을 개시하였습니다.



시 소방 본부에 설치한 재해 대책 본부에서는 재해날부터 연일대책 본부 회의를 개최 (3월11일 2 : 30쯤)

2 지진· 해일에 의한 피난 지시· 피난권고

(1)해일에 의한 시내 연안부에 대해 피난 지시

3월 11일 14시 49분, 기상청으로부터 큰 해일 경보가 발령. 시는, 14시 51분에 방재 행정 무선으로 피난 지시를 내리는 것과 동시에, 연안부를 소관하는 각 소방서 및 소방단, 소방차량등에 의해 해안 부근에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 피난 지시를 권고하였습니다. 추가로 동일 15시 45분에는, 시내 연안부 전역에 대해, 사이렌을 울려 재차 피난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시내를 덮친 해일에 대해서, 기상청이 오나하마 4호 부두 안벽에 설치한 관측기에 의하면, 14시 52분에 1.0 m제1파를 관측한 후, 15시39분에, 최대파로서 3.3 m 해일이 관측되어졌습니다. 그 후, 지진 발생으로부터 2일후인 3월 13일 17시 58분에, 기상청의 해일 주의보가 해제 되었음을 통지를 받고, 동일 시간으로 시내 연안부에 대한 피난 지시를 해제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해일에 의해 시내 연안부에서는 많은 가옥등이 파손되어, 현재도 많은 시민들이 가설 주택등에서 피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해일 피난 권고 정보를 실행하는소방단 차량 (3월11일 15 : 25쯤)이와키 민보사 제공

(2)지진에 의한 피난 지시· 피난권고

3월 11일의 지진 후, 셀 수 없을 만큼의 여진이 발생하는 중에, 대지진 발생 1개월후인 4월 11일과 다음날 12일에, 다시 진도 6미만의 지진이 시내를 덮쳤습니다. 이 지진에 의해, 시내 각지에서는 토사 낙석이나 토사붕괴 사태등이 발생하여, 시는 지금까지의 피난 지시나 피난 권고를 연달아 발령하였습니다. (오른쪽 표 참조) 이 중 다비토 지구에 대해서, 토사 붕괴등의 징조가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4월16일 피난 지시를 해제. 또한, 와타나베지역 카미카마도지구에 대해서는 지방도로 이와키 이시가와 도로의 토사 붕괴의 재복구 공사가 끝난 일 부터, 8월 31일 피난권고를 해제를 하였지만, 조방

●피난 지시· 피난 권고의 경위

지시· 권고 지구	피난지시· 피난권고 경위
조방니시고마치 쉼우다지구 (쉼우다 단지)	3/17(목)08 : 30 피난권고 발령 ※현재도 발령 중
다비토 지구의 일부 (가이유· 가미야마· 사이바치 호리고시)	4/15(금)14 : 00 피난지시 발령 4/16(토)18 : 00 피난지시 해제
와타나베마치 카미가마도아자 아오야 지구의 일부 (2세대 6인)	4/22(금)16 : 00 피난권고 발령 8/31(토)15 : 00 피난권고 해제
우치고다카사카마치 다카하시 지구의 일부 (3세대 8인)	6/28(화)09 : 00 피난권고 발령 ※현재도 발령 중

니시고우 지역 추우다지구 및 우치고 다카사카 지역
다카하시지구 일부에 대해서는, 복구 공사가 완료 되지
않은 관계로 현재도 피난 권고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피난권고를 발령 조방 니시고우 지역 추우다지구

3 원자력 발전 사고에 의한 대처 피난

(1) 신속한 대처 피난

3월 12일 15시 36분에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 1호기가 수소 폭발을 일으키는 등, 원자력 발전 사고의 상황이 시간과 함께 심각화되어 가고 있는 중, 정부가 피난 지시한 범위가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 반경 10km에서 20 km로 확대되었고 또한, 본 시 근처에 입지한 후쿠시마 제2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도, 정보가 입수되어 지지 않은 상태로, 계속 불투명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시에서는, 향후 사태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으로부터 30km, 40km, 50km권내의 피난 계획을 진행시켜 시의 독자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다음날 13일 이른 아침에, 히사노하마·오오히사 지구 주민에 대해 대처 피난을 요청하고, 이동 수단으로서 대형 버스를 확보 하였습니다. 또한, 3월 15일 9시30분에는, 같은 지역 30 km권내에 있는 오가와 지역 카미오가 토와다 지구(23세대·57명) 및 가와마에 지역 시모오케우리 (시다묘우·오기)지구(46세대·131명)에 대해서도, 대처 피난을 요청하는 등, 시민분들의 안전·안심의 확보를 제일로 한 대책을 강구 하였습니다. 또한 총리대신에 의한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 반경 20km에서 30 km권내의 주민에 대해 육내 퇴피 지시가 발령된 것은, 3월 15일11시였습니다. 그 후, 4월 22일, 총리대신에 의한,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으로부터 반경 20 km~30km 권내의 육내 퇴피 지시 해제 및 「계획적 피난 구역」·「긴급시 피난 준비 구역」 설정에 관한 지시가 있어, 본 시 전역이 원자력 발전 관련 규제 지역외가 되었습니다.

(2) 「시장이 지정한 대처 피난 구역」 설정

4월 22일 이후, 시내 전역이 원자력 발전 관련 규제 지역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와마에나 지역 시모오케우리 지역 일부(시다묘우·오기)지구에서는, 시내타지구와 비교하여 높은 방사선량이 관측지점으로 확인되어, 7월 5일에서 독자적인 조치로서 해당 지구를 「시장이 지정한 대처 피난 구역」으로 설정하고, 피난을 희망하는 주민분들께는, 일시 제공 주택을 확보 및 대응을 실시했습니다. 또, 시에서는, 이 지구를 우선적 오염 폐기물 처리 지구로 설정 및 대처를 하였습니다. 한때는, 오염폐기물에 의해 생기는 폐기물을 두는 임시 하치장 문제가 발생하였지만, 주민들로부터 임시 하치장 후보지를 합의하고, 12월 부터 시행적인 오염 제거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또한 본 시는, 12월 28일, 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 오염의 상황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 측정이 필요한 지역이 되는 「오염 상황 중점 조사 지역」(평균적인 방사선량이 1시간 당0.23 마이크로시베르트 이상의 지역을 포함한 시읍면)로서 정부가 지정한 것 입니다



가와마에나지역 민가의 오염제거작업 (12월14일)

4 시장· 재해 대책 본부로부터의 정보 발신

시에서는, 지진 재해 발생 직후부터, FM이와키를 시작하여 텔레비전이나 홈페이지등을 통해서, 시민분들에 대해, 침착한 행동이나 협력의 말씀이외에, 물자·연료 부족에 대한 시 대응의 상황 등, 다양한 정보를 발신해 왔습니다.

또한, 「①지진」 「②해일」 「③원자력사고」 「④거짓정보 피해」의 “사중고”에 시달리는 본 시의 현상을 일각이라도 서둘러서 개선하기 위해, 시장이나 부시장 스스로가, 텔레비전이나 신문등의 인터뷰에 대응하여, 본 시의 고통등을 전국에 발신하는 것과동시에, 전국의 관계 기관 등에 대해 지원이나 협력을 부탁하였습니다.



BS후지TV 「PRIME NEWS」 생방송에 출연하여, 재해 쓰레기에 대해서 토론 하는 모습 (7월13일)

5 관계 기관의 활동·요망

지진 재해 발생에 의한 라이프라인의 단절이나 원자력 발전 사고의 의한 거짓 정보에 물류가 도착하지 않는 등, 본 시가 놓여진 힘든 상황과, 시민분들의 생활 또한 유지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로인해, 시에서는, 지진 재해 후 10일정도는, 식료품이나 식수, 의약품, 일용품, 가솔린등의 생활필수품의 확보 및 물류의 정상화 등, 시민 생활 안정을 최우선으로 임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보도 기관등을 통한 전국에 정보 발신과, 재해 대책 본부의 선두지휘에 선 시장 스스로가, 전화나 면회등, 모든 방법을 이용하여, 국회 의원을 시작하여 정부·현의 관계기관 등에 재해 이후 부터 연일 밤낮 없이 움직이면서 사태의 개선을 위해 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생활 관련 물자에 대해서는, 정부로부터 식료품 제공 및 전국 각 지로부터의 생활 물자의 지원에 가세하여 3월 22일에는 편의점 일부 점포가 재개하는 등, 조기의 물자 확보·물류재개를 실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가솔린등 연료에 대해서도, 시내 전체 정유소가 운영정지한 내에, 3월 16일에 시내 11 정유



총리에게 긴급 요청 활동을 전달하는 시장 (6월6일)

●지금까지 주된 문서 요청의 내용

월일	요청서	주요요청내용
3/15	민주당 자유 민주당	○피난처의 확보, 물자 확보 · 만일의 경우 35만명 시민의 피난 계획의 준비 · 현시점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물품 확보
3/26	정부 민주당 자유 민주당	○시민 생활의 안정 · 재해민분들에 대한 생활 지원 · 안정적인 시민 생활의 확보 · 거짓정보 피해의 해결
3/28	정부 민주당 자유 민주당	○농림 수산물의 거짓정보 피해 · 보상 제도의 확립과 응자 제도의 창설 · 농산물의 유통 · 데이터의 공표, 거짓정보 피해의 불식 · 농산물 공공 시설등에서의 사용· 전문 기술 직원의 파견, 방사선 대책의 지도
4/1 1/19	정부 민주당 자유 민주당 중의원 참의원 현지사	○원자력 발전 사고 관련 ·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재해의 조기 수습 · 거짓정보 피해의 해소 ·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재해에 관한 적정한 보상의 실시 · 방사성 물질의 해양 방출에 대해 설명 책임의 결과 기회의 설정 · 원자력 방재 대책을 보완해야 할 구역(EPZ)의 범위 확대 · 도쿄 전력 후쿠시마 제2 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의 안전 확보에 관한 협정서의 체결 · 도쿄 전력 후쿠시마 제1·2 원자력 발전소의 확실한 안전 대책 · 방사성 물질의 오염제거 실시 · 시민의 건강 관리등 ○부흥 구상 및 원자력 손해에 대해 · 부흥 구상 회의의 검토에 따라서 · 원자력 손해에 대한 배상 ○오나하마항 관련 · 오나하마항의 조기 복구·정비 ○수산업의 대응 · 어업자에 대한 지원, 지도등의 실시, 소프트·하드의 환경 정비 · 어업자의 조업 재개를 향한 대응 ○관광 산업의 지원 ○고속도로, JR등의 고속 교통 체계의 정비 등 ○본 시의 재해 대책, 복구, 부흥에 지원

소에 정부 조달 가솔린이 반입한 것을 시작하여, 3월 20일부터 단계적으로 가솔린 공급을 연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원자력 발전 사고의 조기 수습이나 적절한 보상, 거짓정보 피해의 해결, 본 시의 재해 대책·복구·부흥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 등·장기적으로 해결이 요구되는 사항에 관해서도, 정부나 현, 관계 기관 등에 대해, 지금까지 문서에 의한 요청 이외에, 6월6일에는, 시장 스스로가, 상경하여 내각 총리를 만남을 시작하여 관계 대신에 대해, 지진 재해 복구·부흥을 위한 다양한 긴급 요청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도, 이와키시의 재생과 부흥을 향해 임하기 위해, 기존의 법령·제도 등, 종래의 구조의 틀에 잡히지 않는 정책 입안과 조기·확실한 구현화 등, 시 단독으로는 곤란한 일에 대한 실시나, 시의 대처에 대한 정부 지원등을 계속해서 요구해나아갈 것입니다.

6 도쿄 전력에 대해서

재해 발생 이후 '정부나 현' 원자력 안전·보안원 등 관계기간에 대해,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 사고의 조기 수습 등에 대한 요청·신청을 해 왔습니다.

이러한 중, 사고 발생으로부터 3개월 경과한 6월 30일에, 도쿄 전력(주) 니시자와토시오 사장 및 전 사장인 시미즈 마사다카 고문이, 사장 교대에 따라, 인사를 하기 위해 처음으로 본 시를 방문하였습니다.

시장은 친구 사장으로 부터 사죄를 받은 후, 시미즈 고문이 본 시에 관청 기능을 이전 한 히로노 지역 재해 대책 본부를 방문했을 때 (5월 4일)에, 본 시의 재해 대책 본부를 방문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강하게 전달하는 동시에,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 사고 조기 수습 및 적절한 보상 실시에 대해 '강하게 신청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9월 13일에는, 도쿄 전력 현지 대책 본부를 방문하여, 후쿠시마 제2 원자력 발전소의 확실한 안전 대책과 후쿠시마 제2 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 안전 확보에 관한 협정서의 체결에 대해서도, 신청을 실시하였습니다.



도쿄 전력 사장로부터 사죄를 받는 시장 (6월30일)

7 시의회의 움직임

(1) 시의회 대책 본부를 설치

시의회는, 심각한 재해에 대응하여, 시의 재해대책 및 재해 부흥을 공헌하기 위해, 3월28일에 시의회 내부에 「이와키 시의회 동북지방 태평양해 지진 대책본부」를 설치 (4월2일에 「이와키 시의회 동일본 대지진 재해본부」 명칭변경) 대책본부회의에서, 재해에서 부흥을 위해라는 내용을 협의를 실행 하고, 정부 및 현, 도쿄전력(주)등에 요청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후쿠시마현 의회 의장에게 요청 활동 (4월5일)

(2) 동일본 대재해 부흥 특별 위원회의 활동

시의회는, 재해민 및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정치에 반영하고, 시의 부흥 계획을 시민의 요청과 신뢰를 응하는 한편, 복구·부흥을 위한 과제를 조사하기 위해, 6월16일에 「이와키 시의회 동일본 대재해 대책본부」를 해체하고, 「동일본 대재해 부흥 특별 위원회」를 설치. 위원회 안에는 3개의 분과회 (①시민생활 부흥추진에 관한것 ②지역 산업의 재활·부흥 및 채용 대책에 관한것 ③방재 대책 및 원자력 재해대책에 관한것)를 설치, 의론을 거듭하면서 대응하였습니다. 검토결과에 대해서는, 시장에 따른 제언서를 한데 모아 7월29일 긴급 제언을 개시, 지금까지 3번째 제언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7월25일에는 도쿄전력(주)간부를 출석을 요구하여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후쿠시마 제1 원자력 사고지에 대해서 도쿄전력(주)부터 책임설명을 받은 후, 질문대응을 실시하였습니다. 게다가, 12월26일에는 세이후쿠 의장을 시작하여 각과 대표자,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동일본 대재해 부흥 특별 위원회 세이후쿠 위원장이 도쿄전력(주) 본사를 방문,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부터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해수방재 계획에 항의하고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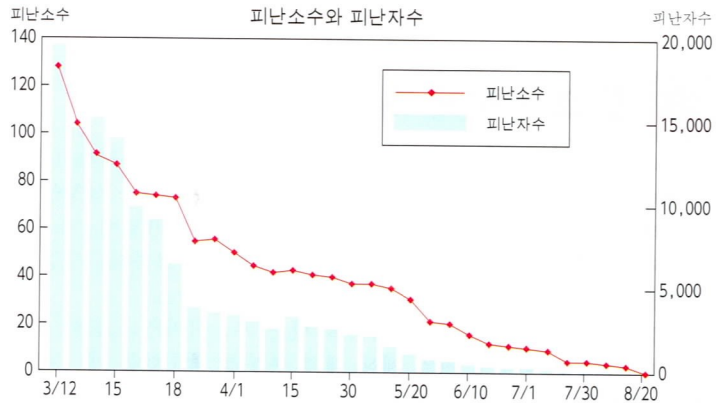
도쿄 전력(주)간부가 출석한 특별위원회 (7월29일)

피난소의 설치· 운영

전대 미문의 대재해는, 시내 연안부 중심으로 심각한 피해를 가져와고, 지진 재해 다음날 3월12일 오전에는, 시내 127개소의 피난소에, 최대 19,813명이 피난을 하였습니다. 그 후의 원자력 발전 사고 영향으로, 이와키 시내에는 후타바군로부터 피난자가 정든 고향을 뒤로한 채 힘든 피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1 피난소 개설

시에서는, 지진 재해 당일에 피난소를 개설하여, 다음12일에, 시내 127개소 피난소를 개설하였지만, 시지역방재 계획으로 지정하고 있던 피난소 가운데, 나가사키 초등학교 등 4개소가 해일로 인한 피해에 따라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지정하지 않았던 절 및 고령자 시설등을 피난소로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2 피난소에서의 생활

(1) 식사 제공

시에서는, 피난소에 피난된 분에 대해, 안정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진 재해 다음날 3월 12일부터 피난소에 식료 배급을 시작하였습니다. 당초에는, 비축하고 있던 건빵등을 제공하는 것 이외에, 시가 독자적으로 조달한 쌀로 만든 주먹밥등으로 대처하였습니다. 또한, 지진 재해로부터 1주간이 지났을 무렵에는, 주민분들과 전국 자원 봉사자들에 의한 식사 공급도 행해져 피난자분들에게 따뜻한 식사 제공을 해 주셨습니다.



시외의 후타바에서 많은 분들이 이용했던 피난소의 모습 (F M 이와키 제공)

(2) 일상생활 지원

시는, 피난분들의 생활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건강면에서는, JMAT(일본 의사회 재해의료팀) 및 시의사회와 제휴로, 순회진료를 행하고, (주)후쿠시마현 영양사회 이와키시부등도 제휴를 하였습니다. 피난소에서는, 교통 수단 및, 식료·일용품등 쇼핑할 수 없는 분을 위해 무료 버스를 운행하는 한편, 입욕 운송 버스를 운행하여,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피난소에서 보건사에 의한 건강상담 (5월9일)

3 피난소 폐쇄

3월 12일에 최대 19,813명이 피난소에 피난 했지만, 물류나 라이프라인이 회복 되어지면서, 서서히 피난자의 수가 줄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4월 11일·12일에 다시 시내에 진도 6약의 지진이 발생하여, 이 지진으로 인해 새로운 피난자가 발생하는 등, 피난소의 폐쇄까지 과정이 힘든 난항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런 중에, 시에서는, 피난소에서 생활하는 이재민의 조기 생활 재건을 위해서 4월 16일부터 피난자에 대해 임시 제공 주택의 제공을 개시하여, 지진 재해 발생으로부터 162일 후 8월 20일에는, 피난소를 폐쇄할 수가 있었습니다.

소방본부의 활동

해일에 의해 연안부에 있는 2개의 소방 청사가 기능이 상실되고, 또한, 활동에 필요한 연료도 부족한 상황에, 시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를 위해, 시 소방 본부에서는, 자위대나 경찰, 긴급 소방 구조대, 소방단, DMAT과의 공동으로 구조·수색 활동등, 다양한 활동을 임해 왔습니다.

1 피난 유도과 구급·구조활동

시소방 본부에서는, 시내 연안부 전역에 발령된 큰 해일 경보를 확인하고, 그와 동시에, 소방 차량등으로, 시내 연안부 주민들에게, 피난을 지시 권고와 함께, 해일 발생 후에는, 피해를 입은 부상자를 구급 이송 및 행방불명자의 수색 활동을 실시하는 등, 시민분들의 안전 확보 및 인명 구조를 위해 대처해 왔습니다.

또한, 다음날 12일부터는, 자위대나 경찰, 긴급 소방 구조대, 소방단, DMAT과 공동으로 구조·수색 활동을 개시하였습니다.

특히 큰 피해를 입은 히사노하마, 요즈쿠라, 타이라 우스이소, 타이라 토요마, 오바마, 이와마를 중점적으로 활동하는 등, 4월 26일까지24일간, 계속하여 구조·수색을 실시해 왔습니다.

지진 재해로부터 1개월경과한 4월 11일에는, 진도 6미만의 강한 지진이 본 시를 다시 발생하여, 다비토지역 이시즈미 지구에 대규모 토사 붕괴가 발생하여, 긴급 소방 구조대와 현 내 소방본부의 협력으로 구조·수색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타이라 우스이소에서 소방단에 의한 수색하는 활동



다비토 지역 이시즈미에서 시 소방 본부가 구조·수색 하는 장면

2 지진에 의한 화재 발생

동일본 대지진에 의한 시내 각 지역에 화재가 동시에 발생하는 사태가 생기고, 상수도관의 파손으로 시내 전체가 단수가 되어, 소화전에서도 취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시 소방본부에서는 신속한 화재 제어 활동을 위해, 물을 적재한 탱크차를 출동시키는 등 부대 강화를 실시하여, 화재 확대를 최소한으로 멈출 수가 있었습니다.

●지진에 의한 화재 건수 출동 인원

월/일	화재 건수 출동 인원
3/11	건물화재 4건 30단체 111인, 차량화재1건3단체11인
3/12	건물화재2건18단체75인, 차량화재1건3단체12인
3/26	건물화재1건 6단체23인
4/7	건물화재1건 8단체23인
4/11	건물화재2건 5단체20인
4/12	건물화재1건 6단체 20인

3 중증 환자의 구급 운송

지진 재해 직후, 해일 피해나 의료자재 부족등으로, 진료 가능한 의료 기관이 줄어든 사태였습니다.

시 소방본부에서는, 3월 15일부터 30일까지 16일간, 종합 이와키 공립 병원 및 시내 의료 기관과 제휴하여, 현, 자위대, 긴급 소방 구조대등의 협력을 얻어, 시내의 중증 환자 177명 (내역 : 구급차 149명, 각 현 방재 헬기 17명, 자위대 헬기 11명)을 의료 상황이 갖추어진 시내의 의료 기관에 전원 운송을 하였습니다.



요모기다 임시 착륙장에서 자위대 헬기에 의한 운송 (3월23일)

의료 기관의 동향

라이프라인이 끊겨져 의약품이 부족하는 등, 시내의 수많은 의료 기관이 휴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종합 이와키 교리츠 병원에서는,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킨다는 책임감 및 각자의 의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본 시의 유일한 재해 중심 병원으로서, 활약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의료 기관의 마지막 방어지로서 역할 책임을 다해 왔습니다.

1 종합 이와키 교리츠 병원의 동향

(1) 입원· 구급 환자의 대응

지진 발생 후, 종합 이와키 교리츠 병원에서는, 병원내에 재해 대책 본부를 설치. 입원 환자를 옥외에 퇴피시키는 한편, 병동 피해 확인 등, 입원 환자의 안전 확보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후, 당병원의 전기·수도·가스 주요 라이프 라인이 3월14일까지 모두 복구하였지만, 원자력 발전 사고 영향에 의해, 피난 구역이 더 확대 되는 것을 우려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병원과 DMAT(재해 파견 의료팀)는, 시 소방 본부등을 통해 시외의 병원으로 전원 운송하기 위해 구급차나 방재 헬기, 자위대 헬기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NICU(신생아 전문 치료실), 소아과, 산부인과 등 방사선 영향에 민감한 환자, 퇴피가 곤란한 인공 호흡기 장착 환자등을 운송할 때에는, 운송처까지 당병원 의사와 간호사가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한편, 당병원에서는, 진료 기능이 불가능·악화된 의료 기관으로부터 중증 입원 환자를 적극적으로 받아 들이는 동시에, 지진 재해로 부상 입은 구급 환자를 수용하는 등, 의사와 간호사가 전원 총동원하여, 시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교리츠 병원 환자들을 퇴피시키는 모습 (3월11일)



분주한 구급 센터 (3월11일)

(2) 외래 환자의 대응

당 병원에서는, 원자력 발전 사고에 의해 물자 부족, 지진, 해일에 의해 피해를 입은 긴급 환자를 대응 하기 위해, 긴급이 필요로 하지 않는 외래 검사나 정기 수술은 일부 제한을 하였습니다. 또한, 시내 의료 기관의 휴진이나 약국의 휴업이 잇따르면서, 당 병원 이외의 다른 의료 기관의 외래 환자들이 당 병원으로 방문하므로, 통상은 병원 외에서 처방하는 약을 병원 내에서 처방을 전환하는 동시에, 재고가 감소한 의약품은, 당 병원 직원들이 시외의 도매상에 가서 직접 조달을 하였습니다.

2 시내의 의료 기관 상황

지진 발생 후 많은 의료 기관이 휴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시에서는, 시내의 의료 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3월12일부터 4월17일까지 DMAT를, 3월12일부터 5월3일까지는 JMAT(일본 의사회 재해 의료 팀) 을 수용하여 시 의사 회와 제휴로, 피난소 등 시내 각 지역을 순회하면 진료를 실시해 왔습니다.

또한, 3월13일에는, 시 휴일 야간 응급 진료소를 재개하는 동시에, 3월20일 및 21일에는, 시 의사회가, 시 의사회관과 시 종합 보건 복지 센터에 임시 진료소를 개설하여, 진찰 및 약처방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15일부터 4월3일까지 약 20일간, 시 종합 보건복지 센터내 휴일 구급 치과 진료소에, 치과 의사회 협력으로,응급적인 치과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시내 의료 기관에서도, 수도,가스,전기 등, 진료 및 조제에 필요한 라이프 라인 복구에 따라 서서히 진료를 재개하여, 4월상순부터는, 해일 침수 구역을 제외한 병원 대부분이 외래 진료를 재개하였습니다.



피난소에 J M A T가 순회 진료 모습 (4월3일 : 민보사 제공)

국내외로부터 받은 지원 물자

원자력 발전 사고에 의한 거짓 정보로, 일시적 시외로부터 물류가 막혀, 식료 등 생활 관련 물자 조달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지만, 전국 자치체나 기업·단체를 비롯하여 개인으로부터도 많은 지원 물자를 받아, 어려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국으로부터 받은 정성 어린 물자들은, 신속하게 시민분들에게 전달을 하였습니다.

1 물자 부족에 대응

지진 재해 발생 후, 시는 재해 대책 본부내에 물자반을 설치. 다음날 12일에는, 이와키 타이라 경륜 장소에 지원 물자 집배 센터를 개설하여, 받은 지원 물자를 배송 시작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진 재해 및 원자력 발전 사고에 의한 거짓 정보로 물류가 막혀, 식료나 가솔린 등 조달이 궁극적으로 위기 상황으로 빠졌습니다. 이 때문에, 시에서는, 사태 타개를 위해, 정부 및 현 등의 관계자 체 등, 연일 재차 식료품과 물 등의 생활 관련 물자 확보를 요청. 3월20일에는 시장 스스로가 농림 수산부 장관에게 요청을 호소하여 다음날부터 26일까지 1일 약 5만명분 정부 조달 식료를 제공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시민분들로부터도, 물자 배송이나 의약품·유아품 제공에 관하여, 많은 협력을 받았습니다.



시도교 사무실에서는, 미나토 전면적 지원 안에 미나토 스포츠센터에서 식료품 등을 접수하는 모습(3월28일 : 미나토구 제공)

2 국내외로부터 지원 물자 제공

지진 재해 다음날 부터는, 타자치체나 기업·단체, 및 개인분들로부터 건빵이나 쌀, 모포 등을 제공하는 등, 많은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 수는 약 100여 품목으로, 주된 품목은, 물(식수) 약 91만리터, 모포가 약 9만매, 컵라면이 약 28만식,레토르트 식품이 약 18만식을 지원 받았습니다. 지원 물자에 대해서는, 지진 재해 다음날 부터 조석 1일 2회 피난소에 배송하였고, 이재민분들이 피난 생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나하마지소에도 많은 지원물자가 적자 된 모습 (3월30일)

3 일반 가정에 물자 배포

지진 재해 발생으로부터 1주간 경과 하여도, 원자력 발전 사고에 의한 거짓 정보로 시외로부터의 물류가 막혀, 많은 시민들이 식료 등 조달을 할 수 없는 어려운 사태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시에서는, 3월21일부터 28일에 걸쳐 (전6회), 시내24개소 공민관 등에서, 행정 수행원이나 구청장, 민생 위원, 소방단, 자원봉사의 협력하에, 시민분에 대해 식료 및 생활 용품을 배포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는, 사회 복지시설이나 병원, 육아소, 유치원, 초중학교, 일차 제공 주택 입주자에 대해서도, 필요한 물자 제공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진 재해로부터 2주간경과, 안정적이라고는 할 수 없어도 서서히 물류가 회복상태로 돌아가는, 3월 29일부터는, 식료 등 배포 대상자를, 독신 생활의 고령자 등 일상생활에 지원이 필요한 분으로 한정하여, 공민관등을 거점으로 5월 10일까지 식료 등을 배포 실시하였습니다.



소방단에 의한 지원 물자를 배포하는 모습 (4월28일)

의연금의 수납과 배분

주택 유출이나 가옥 파손 등 대규모 손해를 받은 분에 대해서, 전국 각지, 또한 국외로부터도 의연금 신청을 받았습니다. 시에서는, 이재민분들의 조기 생활 재건을 위해서 받은 의연금을 신속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주택의 반괴이상 등, 피해의 상황에 따라 평등하게 지급해 왔습니다.

1 국내외로부터 받은 의연금

시에서는, 3월 17일에 의연금 접수를 개시하였습니다. 의연금 용도에 대해서는, 재해 받은 분의 「생활 지원」 모금인지, 시의 「재해 복구·부흥」을 목적으로 한 모금인지에 대해, 사전 선택을 하였습니다. 2012년2월1일 현재, 본 시에서는 약 14억엔, 정부(일본 적십자사 등)·후쿠시마현을 통한 배분에 맞춰, 약 311억엔 의연금이 전해졌습니다.



본시 출신 학생들에 의한 단체 「리를 이와키」에서 대학 축제에서 이모니를 판매한 이익을 의연금으로서보내 주셨습니다 (12월28일)

●전해진 의연금 내역 (2012년2월1일 현재)

구분·용도		금액 (건수)
본 시에 전해진 의연금		13억9,971만2,267엔 (4,598건)
내역	이재민에 대한 생활 지원금	7억1,192만4,279엔 (2,361건)
	재해로부터의 복구·부흥	6억8,778만7,988엔 (2,237건)
정부에서 본 시로 배분된 의연금		252억1,901만2,228엔
후쿠시마현에서 본 시로 배분된 의연금		45억2,950만엔

2 현 내에서 가장 빠른 배분

이 중, ① 「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의연금에 대해서는, 이재민분들에게 한시라도 빨리 인도할 수 있도록, 4월 14일에 제1회의 배분 위원회를 개최. 본시로서 의연금제 1차 배분을, 1세대당 5만엔으로 결정하여, 현 의연금과 합하여 4월16일 부터 배분을 개시하였습니다. (본시의 제 1차 배분에 대해서는, 현내에서 가장 빠른 배분을 개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7월 25일에는, 제2회 배분 위원회를 개최. 제2차배분에서는 개인 단위로서 배분하는 것으로 하여, 7월 29일부터차레차레 배분을 개시하였습니다. 2012년2월1일 현재, 신청을 한33,369세대 가운데, 95.3%에 해당하는 31,804세대에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신청 하신 분에게도 신속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② 「재해 복구·부흥」을 목적으로 한 의연금에대해서는, 시의 예산에 계산하여, 2012년도 이후, 시의 부흥 재원으로 유효하게 활용할 것입니다.

이외, 의연금과는 별도로 본 시 독자적으로, 이재민의 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주택에 반괴이상의 피해를 받은 분들에게, 재해 구조비 지급도 하고 있습니다.

●의연금의 배분액

구분	배분액	
	1세대당	1인당
주택 전괴	45만엔	23만엔
주택 반괴 (대규모 반괴 포함)	28만엔	11.5만엔
후쿠시마 1 원자력 발전으로부터30km권내 (구육내 퇴피 구역)	45만엔	3만엔
사 망 자	35만엔 (1인당)	73만엔
재해 고아	-	100만엔
재해 유아	-	50만엔

※배분액은 정부(일본 적십자사 등) 현 시의각종 의연금의 합계입니다.
 ※원자력 발전 사고에 따른 피난에 의한 배분과, 주택 피해에 의한 배분은 중복하여 받을 수가 없습니다.

대량의 재해 쓰레기 발생

시내 연안부를 덮친 큰 해일에 의해, 많은 피해를 받은 연안부에서는 대량의 재해 쓰레기가 발생. 게다가 4월11·12일의 직하형 대규모 여진에 의해, 내륙부에서도 큰 피해를 받아 여러가지 쓰레기 양이 70만톤에 이르것이라고 추정되어 지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재민의 수색·구명 활동·이재민 생활을 신속히 재건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 직후의 재해 쓰레기를 철거시키는 동시에, 처분에 대한 대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유출 재해 쓰레기 철거

시에서는, 이와키시 건설업 협동조합과의 협정에 근거하여, 시내 연안지구의 건설업자 협력을 얻어서, 지진 재해 다음날 12일부터 중기를이용한 도로상의 재해 쓰레기 철거 작업을 개시. 동시에, 자위대, 현경찰, 소방본부, 소방단등에 의한 행방 불명자의 수색·구조 활동을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해일 피해 지구에 있어 도로상의 유출 재해쓰레기 철거는, 4월상순에 작업 목표로 하고, 조기 재해지역 복구를위해 4월 6일부터 부지내에 유출 쓰레기 철거·반출을 시작하여7월말에는 거의 완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7월부터는, 해일에 의해부서진 가옥 해체 철거·반출을 개시하여, 현재에도, 소유자 동의를얻어, 작업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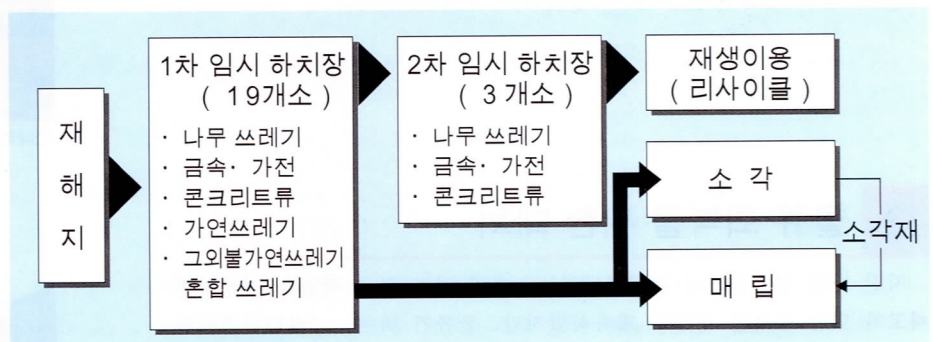
우스이스 지구에서 중기에 의한 유출 쓰레기 철거 작업 (4월26일)

2 재해 쓰레기 집적·처분

지금까지 시에서는, 재해 쓰레기를일시적으로 보관한 1차 임시 하치장을 시내 19개소에 설치했습니다.

또, 리사이클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시내 3개소에 2차 임시로 하치장을설치하여, 1차 임시 하치장 쓰레기를 「나무쓰레기류」·「금속·가전류」·「콘크리트류」등을 분별해 이송하는 등, 계획적으로 쓰레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해 쓰레기에 대해, 당분간, 정부에 의해 처리가 제한 되고 있지만, 6월 23일 정부에서 「후쿠시마현내의 재해 폐기물의 처리의 방침」이 발표, 본시에서도 일정한 조건으로 재해 폐기물 처리가 인정되었습니다. 시에서는, 7월부터 쓰레기 등 재해 폐기물 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도로의 노반재등으로, 철 및 알루미늄등의 금속류는 강제 재료에, 나무 쓰레기 등은 주택용 건재로서 활용하는 것으로 하여, 각각 리사이클 처리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동일 방침으로, 가연물에 대해서는 일정한 배기가스 흡착 능력을 가진 시설에 소각하고, 불연물에 대해서는 관리형 최종 처분장에 매립이 가능하는것 부터, 시설 주변지역에 설명회 개최하는 등, 소각이나 매립 처분의 처리를 위해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면】 재해 쓰레기 처리 순서도



분별된 쓰레기 신마이크 하이츠 그라운드 (2012년1월11일)

고갈된 가솔린과 물자 부족

지진에 의한 인프라 파괴와 원자력 발전 사고의 거짓정보로 물류가 끊겨 시내 주유소나 소매점에서는, 급유를 기다리는 차나 생활 필수품을 구매하려는 사람으로 긴 행렬이 생기는 등, 지진 재해에 의해서 물자 부족은, 시민 생활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시에서는, 한시라도 빠른 개선을 위해서 정부 및 현, 관계 단체등에 요청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대처를 실시하여, 가솔린이나 물자 공급 체제를 조기에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1 가솔린 부족에 대응

동일본의 제유소가 지진 재해를 받거나 교통망의 두절이 되고, 지진 재해 직후부터 심각한 연료 부족이 발생했습니다. 시내에서는, 원자력 발전 사고의 거짓정보로 인해 더욱 더 연료 공급이 중단 되어, 시민 생활에 큰 혼란이 생겼습니다. 시에서는, 지진 재해 직후부터, 가솔린 확보를 위해 전 조직이 함께, 연료의 안정적인 공급 체제 확보에 대해, 정부 및 현, 관계단체 등에, 재삼 걸쳐 요청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3월 16일에는, 정부 조달로 가솔린 공급을 받는 것이 가능해졌지만, 그 운반처가 코리야마시 지역으로, 시에서는, 서둘러, 소방직원 등 20명을 파견, 연료차 8대 투입하여, 시내 11개의 급유소에 가솔린등을 공급하였습니다. 게다가 3월 16일에는, 시장 자신이 오나하마석유(주)회사에, 비축 석유를 공공 방출을 요청하고, 동일회사 및 후쿠시마현 후원으로 3월 20일부터 26일간, 4회에 걸쳐서 합계 2,828 k l 의 가솔린등을 시내 급유소에 공급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시내에 단계적인 연료 공급이 가능해지고, 3월 28일에는, 오나하마항 부두 공용이 개시되어 다음날 29일에 민간 대형 석유 탱크의 입항이 재개 되므로, 시내 연료 부족이 크게 개선되어 나아갔습니다.



주유소에서 정유를 기다리는 차량
(3월28일 : 세키쇼상사(주)제공)



오나하마 석유(주) 탱크구역

2 물류 회복을 위한 대처

지진 재해 후, 슈퍼나 편의점에서는, 재해 점포 복구 작업을 진행하면서 재고가 있는 점포는 영업을 계속하였지만, 물류가 막혀, 3월15일경에는, 대부분 소매점이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구원 물자는 조금씩 시내에 전달 되었지만, 통상 물류가 회복되지 않아, 일반 가정에 물자가 전달 되지 않는 심각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시장 스스로가 총리 대신에 호소한 결과, 경제 산업 대신을 통해 업계 단체가 움직이므로 시내 전역에 폐점하고 있던 편의점이

3월 22일부터 서서히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슈퍼등이 재개하는 기간까지, 공민관등에서 시민분들에게 지원 물자를 배포하는 등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 후, 지진 재해로부터 2주간이 경과하면서 물류가 회복하기 시작하여 3월 28일경에는, 영업 시간 단축등을 하지 않아도, 대부분 소매점들이 재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편 사업에 대해서도, 우편취급이 중단되었지만, 총무성 관련기관이 움직이므로, 3월 25일경부터 배달이 재개되어 시내 물류가 정상화로 되었습니다.



생활물자를 구매하려는 시민들의 행렬
(3월12일 : 이와키민보사 제공)



상품이 없는 슈퍼마켓 진열장(3월12일)

대규모 단수로부터 긴급 복구

3월 11일과 4월 11일 진도 6 미만의 지진이 2번씩 일어나므로 대규모 단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시 수도국에서는, 24시간 체제로 복구·급수 활동과 동시에, 전국 수도 사업체나 자원봉사자들의 지원도 있어 당초 예정보다 빠른 급수 재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1 곤란을 극복한 복구·급수 활동

3월 11일 지진으로, 정수장에서 배수지로 물을 보내는 기간관로에 누수가 다발적으로 생겨 배수지의 송수가 불가능하게 되어, 시내 전역 약 13만호가 단수가 되었습니다.

(1) 복구 활동

시 수도국에서는, 지진 재해 후부터 24시간 체제로 복구 작업을 개시 하였습니다. 다음 12일에는, 송수계 기간 관로 복구 작업을 완료하고 배수지의 송수를 시작, 13일에는, 배수지로부터 단계적으로 송수를 개시하여, 병원에 통수하였습니다. 한때는, 원자력 발전 사고의 거짓정보에 의해 자재 조달이 뜻대로 되지 않아, 복구가 다소 늦어지는 사태 이었지만, 수도국의 재해용 자재등으로 응급 복구를 진행시켜 3월 23일에는, 시내 각지구의 복구예정을 표시한 「급물 복구 계획」을 작성하여, 시민들에게 자세한 사항을 알렸습니다. 휴일없이 복구작업을 한 결과, 지진 재해로부터 1개월인 4월 10일에는, 수도 복구율이 97%까지 회복이 되었습니다.

(2) 급수 활동

복구 작업을 서두르는 한편, 지진 재해 직후부터, 병원에 순회 급수나 비상용 지하 저수조에 의한 응급 급수 활동을 개시. 다음날 12일부터는, 시내 각지에 급수소를 설치 하는 동시에, 풍선식 저수조에 의해 피난소에 급수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단수 발생으로부터 오랫동안, 가솔린 부족 및 거짓정보에 의해 한정된 차량이나 인원으로 대응 할 수 없게 되어 급수 요청등에 충분히 반응 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되었습니다. 그 후, 전국 각지의 수도 사업체등의 지원을 받게 되어서, 단지등과 세세한 곳으로도 순회 급수가 가능해져, 최대 많을 때에는 55개소의 급수소를 개설하였습니다.



이즈미지역 시모가와 시내 국도 6호 수도관 복구 공사 (3월25일)



재해 다음날 타이라 체육관에서급수를 기다리는 행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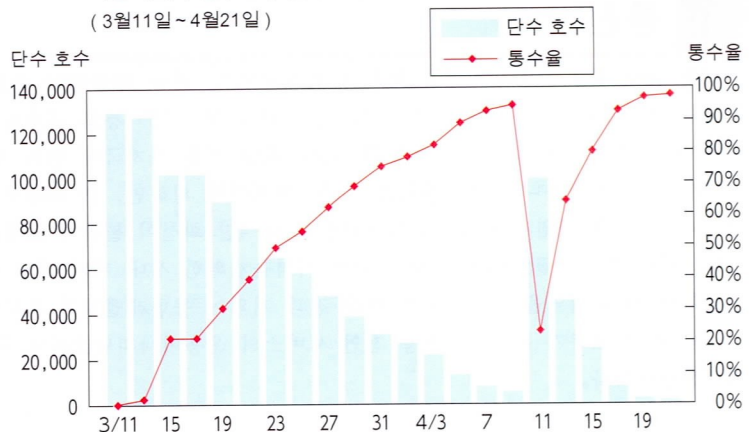


형제도시 노베오카의 지원 직원에 의한 이즈미가오카단치 지역에서 급수활동 (3월27일 : 노베오카 제공)

2 거듭된 단수

간신히 시내 전역 복구가 보였던 4월 11일에, 대규모 여진이 발생. 펌프장등이 정전으로 일시적으로 가동할 수 없게 되어 다시 약 10만 세대가 단수하는 사태 되었습니다. 재차 단수가 넓은 지역으로 걸쳐, 급수·복구 작업이, 늦어질 것 같았지만 라이프라인을 구축한다는 사명감을갖고 복구 작업을 하여, 10일 후 4월21일에는, 해일이나지역 피해로 복구가 곤란한 지역을 제외한, 시내 거의전역으로 복구가 완료했습니다. 이번 지진 재해로, 전국각지의 수도 사업체나 관공사 사업등의 협력을 받아, 당초 예정보다 빠른 급수를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지진 재해 후 단수 호수 및 통수율 (3월11일~4월2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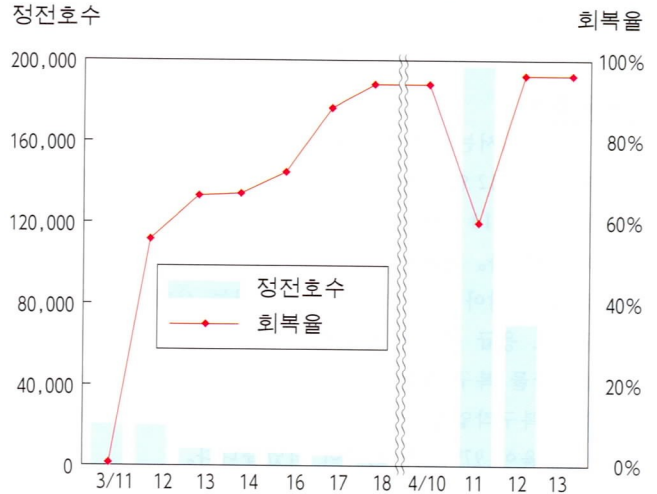
라이프라인 복구에 일정

전기나 가스 공급이 시내에 광범위하게 멈춘 동시에, 핸드폰도 한동안 연결 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 되는, 지진 재해는, 일상 생활에 빠뜨릴 수 없는 라이프 라인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조기 복구를 위해서 각 사업자들이 극복 작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이재민 지원에도, 다양한 대처를 실시하였습니다.

1 전기

동북전력(주)이와키영업소에 의하면, 3월11일 지진 발생 직후, 시내 각지에서 20,670호가 정전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4월 11일 대규모 직하형 여진으로, 전력설비에서 비정상이 발생하여, 시내 전역199,73호가 정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상황에, 동일사에서는, 재해 발생직후보다 현재의 연 9,237인을 지원체제로 응급 복구 작업을 진행하여, 3월 본진에서 해일이나 유출한 지역을 제외 1주간 이내에 회복시키고, 4월 여진에서는 다음날 12일까지 지역 정전을 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일 및 토사 붕괴 등에 의한 피해 장소에 대해서는, 쓰레기 철거를 시작하여, 복구를 하여, 지진 재해 발생으로부터 48일후 인 4월 28일까지, 시내 전역을 복구하였습니다.

재해 후 정전호수 및 회복률



2 도시가스

3월 11일 지진에, 가스관 파손에 의한 가스 누출등이 발생하므로, 조방 공동가스(주)에서는, 조방·우치고·요시마지구 14,572 호가, 조방가스(주)에서는, 니시키지구 646 호가 공급 정지가 되었습니다. 또한, 동부가스(주)에서는, 타이라지구 91 호에 대해 일시적으로 가스를 정지 보안 조치를 취했습니다. 도시가스 복구에 있어서는, 배관이 지중에 매설되어 있는 것과, 각 가정내 가스기구 개별 점검이 필요한 것과, 원자력 발전 사고 거짓 정보로 자재 조달이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복구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로 했지만, 4월중에, 대부분 지역을 복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각 사업사에서, 도시가스를 이용할 수 없는 동안 조급이라도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탁상용 난로 및 소형 가스 버너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조방 카미야나가야에서의 가스 복구하는 공사 모습 (4월15일 : 조방공동가스(주)제공)

3 통신

지진 재해 직후, 안부 확인등 통화가 집중하므로, 긴급 통보등의 중요통신을 확보하기 위해, NTT동일본에서, 최대 90%, 휴대 전화·PHS각 이동 통신 사업사에서, 최대 70%~95% 통화 규제를 하였습니다. 또한, 정전등에 고정 전화의교환국이나 휴대 전화 기지국이 정지상태가 교환국이나 휴대 전화 기지국이 정지 상태가 일어나므로, 시내 전역에 통화가 잘 되지 않는 상태가 계속 되었습니다. NTT동일본 후쿠시마지점에 의하면, 현 내에서, 지진 재해 당초 광회선(음성 통화·인터넷)의 약 7만 회선, 그 후 가입전화 약 4만회선이전화 약 4만 회선이 불통이 되었습니다만, 가입 전화를 포함하여 지진 재해 발생으로부터 1주일 후인 3월 18일에, 해일 재해 지역을제외한 시내 거의 전역이 복구되었습니다. 또한, 휴대 전화등에 대해서는, 4월말까지 일부 지역을 제외, 지진 재해 전과 거의 동등한레벨까지 회복되었습니다. 게다가 각 통신 사업사에서, 이재민 통신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재해용 전언 서비스의 운용이나피난소의 무료 특설 공중 전화 설치, 이동 기지국 차량 배치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곳곳이 파괴된 도로

토사 붕괴등으로 도로가 끊기는 동시에, 시내 도로가 가는 곳 마다 단차 및 균열등이 다수 발생하여, 각 지역에서는 통행금지가 되는 등 대규모 교통 장애가 일어났습니다. 도로는, 지역의 부흥이나 생활 재건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시급한 응급 복구 공사가 요구되었습니다.

1 고속도로

조방자동차도로, 반에즈자동차는, 안전 확인을 위해 지진 재해 직후부터 통행금지가 되었습니다. 동일본 고속도로에서는, 신속히 긴급 복구 공사를 실시하여, 지진 재해 발생으로부터 약 20시간 후 12일 11시에는, 긴급차량 통행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15일에는, 후쿠시마현 지사의 요청에 의해, 원자력 발전 사고에 의한 피난 차량 통행에 대한, 관내 요금소가 개방되었습니다. 3월 지진에서, 노면의 단차나 균열등이 다수 발생하여, 양도로 합쳐 85개소가 피해를 받았지만, 응급 복구 공사를 진행하여 3월21일에는 조방도로 이와키 나코소~ IC이와키 추오 IC, 24일에는, 반에즈 이와키 JCT~오노IC, 4월1일에는, 이와키 추오IC ~이와키 요즈쿠라 IC로 각각 일반 차량을 통행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4월11일의 여진에서는, 조방도로 이와키 나코소 IC~이와키 유모토 IC에서 경사면이 붕괴하는 등 큰 피해를 받아 다시 통행금지가 되었습니다만, 14일에 응급복구 공사를 완료하여 재개되었습니다. 현재, 조방도로는, 히로노 IC까지 통행이 가능해졌습니다.



4월11일 조방도로 이와키나코소 IC ~ 이와키유모토 IC 경사면 붕괴(동일본 고속도로(주))

4월11일 이와키 이시가와와타나베지역 카미가마도 경사면 붕괴



가설 도로에 의해 8월 31일 재개통 (이와키 건설 사무소)

2 국도· 지방도로

국도 6호에서는, 사메가와오오하시등, 큰 피해가 발생한 8개소에 대해서, 지진 재해 직후부터 통행금지가 되었습니다만, 응급 복구 공사에 의해, 요즈쿠라~히사노하마간의 1개소를 제외하고 3월 13일까지 통행이 가능해졌습니다. 한편, 국도 49호에서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통행금지 등의 조치는 실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지방도로는, 3월 11일 지진으로, 히사노하마 항선의 교량이 붕괴되는 등, 해일에 의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4월 11일에는, 지방도로 이와키 이시가와선의 와타나베도시 카미가마도 지역과 다비토도시 사이바치지역에 있어, 경사면이 크게 붕괴하는 등, 피해가 확대되어, 지금까지 112개소가 피해를 받았습니다. 현재, 일부를 제외하고는 응급 복구 공사가 완료 되었지만, 본시의 복구를 위해 새로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시의 도로

시 도로에는, 노면의 단차나 토사 붕괴등에 의해 함께 2,574개소가 피해를 입어 123개소가 통행금지가 되었습니다. 이 중, 우치고우치 도시의 미야자와·히루우치선이나 타이라미나미시라도의 키타시라도·스가나미선에서는, 경사면이 붕괴해, 복구 공사를 하기 위해 현재도 통행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도로에 붕괴된 토사 철거 및 균열, 단차의 복구 등 대응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 지금까지 응급 공사를 실시해 왔지만, 현재는 본 시의 복구를 위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시내 도로 피해수

구 분	노선수	피해개소수
고속도로	2	86
국도	2	8
지방도로 (지정 구간의 일반 국도 포함)	44	112
시의 도로	8,719	2,574
계	8,767	2,780

교통기관 및 항만의 상황

철도가 1개월간 불통이 되는 중에, 다음날부터 여객기는 임시편을 운행, 고속버스는 1주일 후, 노선버스는 11일 후에 운행을 재개하였습니다. 또한, 후쿠시마 공항은, 구원 지원 물자의 운송 역할로서 발휘하는 한편, 오나하마항은 지진 재해 직후부터 복구 작업에 의해, 조기에 재개할 수 있어 가솔린 등 긴급 물자의 수송 거점으로서 큰 역할을 완수하였습니다.

1 철도

JR조방선·반에츠동선 모두 지진 직후부터 전면 운행정지가 되었습니다. 이와키역~우치고우역에서는, 전기주가 경사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복구에 시간 필요하므로 장기간 운행정지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복구 작업을 진행시킨 결과, 4월 11일에, 이와키역~타가하기역의 일반 열차 특별한 타이어로 운전을 재개, 도쿄까지 운행이 가능해지면서, 4월 28일에는, 특급 열차의 운행이 재개되었습니다. 이와키역 북쪽으로, 4월17일에 요즈쿠라역, 5월 14일에 히사노하마역, 10월 10일에 우에노역까지 각각의 운행이 재개 되었습니다. 또한, 반에츠동선은, 4월 15일에 이와키역~오노니마치역으로 통상 운전을 재개하였습니다. 게다가 시에서는, 4월 28일부터 5월 14일까지, 조방선 요즈쿠라역~히사노하마역에 대체 버스를 운행하여, 히사노하마·오오히사지구의 생활 편의 및 통근·통학을 위한 이동 수단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와키역~우치고역 복구작업
(3월18일 : JR동일본 미토시사 제공)

●교통 인프라 재개 상황 (4월말까지)

월일	구 분	내 용
—	리무진버스	이와키~후쿠시마공항선은 지진 재해 후에도 계속 운행
3/18	고속버스	이와키~도쿄선 10 회 왕복 운행 재개
3/20	고속버스	이와키~토리야마선 6회 왕복 운행 재개
3/21	조방자동차도로	미토IC~이와키 추오IC재개
3/22	시내노선버스	6노선이 휴일일정대로 운행 재개
3/24	조방자동차도로	이와키JCT~니이가타IC재개
3/28	고속버스	이와키~센다이선3회 왕복 운행 재개
4/1	조방자동차도로	이와키추오IC~이와키 요즈쿠라 I C 재개
4/6	시내노선버스	일부 제외한 일반노선 일정 운행 재개
4/11	J R 조방선	이와키역~다카하기역 일반열차 운행 재개
4/15	J R 반에츠동선	이와키역~오노니마치역 재개
	고속버스	이와키~코토·오오사카선1회 왕복 운행 재개
4/17	고속버스	이와키~후쿠시마선 4회 왕복 운행 재개
	J R 조방선	이와키역~요즈쿠라역 일반열차 재개
4/28	J R 조방선	이와키역~도쿄역 특급열차 전 운행
	고속버스	이와키~코리야마~아이즈와카마츠23회 왕복 운행 재개

2 버스

신조방 교통(주)에 의하면, 시내 노선버스의, 가솔린 조달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3월 15일 오후부터 전면 운휴가 되었지만, 3월 22일에는 6 개 노선이 휴일일정대로 운행을 재개하고, 4월 6일에는, 일부 노선을 제외한 일반노선 일정대로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또한, JR조방선이 복구될 때까지의 대체 수송으로서 4월 1일부터 이와키역~나코소역, 이와키역~히타치역에 임시 버스를 운행하였습니다. 고속버스등에 대해서는, 이와키~후쿠시마 공항을 잇는 리무진 버스가 지진 재해 이후에도 운행을 하고, 3월 18일에는, 고속버스 이와키~도쿄선 운행을 재개하여, 시외의 교통 수단을 확보하였습니다.

3 택시

지진에 의해, 다른 교통 기관을 이용할 수 없고, 가솔린 부족으로 차량을 이용 할 수 없는 상황, 시내에서는 이동 수단을 계속하여 이용 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연료 LP(액화 석유) 가스를 사용하고 있던 택시는, 지진 재해 발생 후에도 운행을 계속할 수 있어 얼마 안되는 이동 수단으로 큰 역할을 완수하였습니다. 이와키시 택시 사업 협동조합에 의하면, 시내 2개소에 있는 택시용 가스 급유소의 피해가 없는 관계로 연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지진 후에도 영업을 계속할 수 있어 이재민이나 피난분 등에게 많은 이용을 받았습니다.

4 후쿠시마 공항

지진 재해 후, 교통기관이 불통이 되는 상황에, 피해가 거의 없었던 후쿠시마공항에서는, 다음날 3월 12일부터 4월 10일까지 후쿠시마 공항~하네다 공항선등합계290편의 임시편을 운행, 약 2만명이 이용하여, 후쿠시마현민의 이동 수단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공항 여객 터미널내의 체류자에게는, 유료 임대실을 무료 개방하여, 모포, 음료수등을 수시로 배포하였습니다. 3월 14일부터 5월 2일까지 안에, 자위대기 및 민간기 총 86기에 의해, 식료, 일용품, 의약품등의 지원 물자를 공수하여 현내 각지로 배송하였습니다. 후쿠시마공항은 구원 물자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크게 발휘 하였습니다.



후쿠시마공항에서 자위대기에 의한 물자 반입
(3월20일 : 후쿠시마 공항사무소 제공)

5 중요항만 오나하마항

(1)피해로부터 복구까지

오나하마항은, 해일에 의해 방파제 및 하역 기계의 손상, 선박이 부두위로 올라오는 등, 많은 항만 시설이 재해를 받았습니다. 현에서는, 피해가 적은 후지와라 부두를 응급 복구한 결과, 재해 발생으로부터 7일 후 3월 18일에, 긴급 물자 수송선 제 1선이 입항을 하였습니다. 게다가3월 29일에는, 석유탱크 제 1선이 대검 부두에 입항 하여, 가솔린등 연료 부족에 대응.긴급 물자의 수송 거점으로서 큰 역할을 완수하였습니다. 또, 8월 18일에 정부, 현을 시작으로 관계자로부터 오나하마항 부흥 회의가 책정되었습니다. 「오나하마항 복구·부흥 방침」에 대해, 대략 2년 이내 주요한 방파제의 복구를 완료시키고, 3년 이내에 모든 항만 시설의 복구 목표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약 70% 공공 안벽이 공용 되었습니다만, 지진 재해전에 개설된 한국·중국의 외무정기 컨테이너 항로가 현재도 휴정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11월 7일부터 9일에, 시장은, 한국 선박 회사를 방문하여, 오나하마항의 복구 속도 및 진행 현황을 설명하는등, 항로 재개를 향한 포토 세일즈를 실시하였습니다.



복구가 진행 중인 오나하마항 5·6부두(7월25일)

(2)국제 벌크 전략 항만 선정

국제 벌크 전략 항만 정책은, 국내 산업이나 국민 생활에 필요 불가결한 물자를 엄가로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대형 수송선을 입항할 수 있는 항구를 집중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정부는, 2010년 6월에, 철광석·석탄·곡물 3품목으로 국제 벌크 전략항만을 모집하였습니다.

현이, 2010년 8월에 오나하마항 석탄의 품목에 의한 국제 벌크 전략 항만에 응모한 이래, 시에서는, 관민 일체가 되어 요망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11년 5월에, 오나하마항이 석탄 분야에 있어서 국제 벌크 전략 항만으로서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선정에 의해, 지진 재해에 심대한 피해를 받은 오나하마항의 조기 부흥이나 정비가 진행되고 있는 오나하마 동쪽항 지구의 착실한 정비, 취급 화물량의 증대를 기대받고 있습니다. 이외, 물류의 효율화에 의한 수송 코스트의 대폭적인 경감을 도모할 수 있는 것으로, 오나하마항을 이용하는 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강화되는 등, 본시의 경제발전이나 지역 활성화에 대한 큰 효과를 기대되어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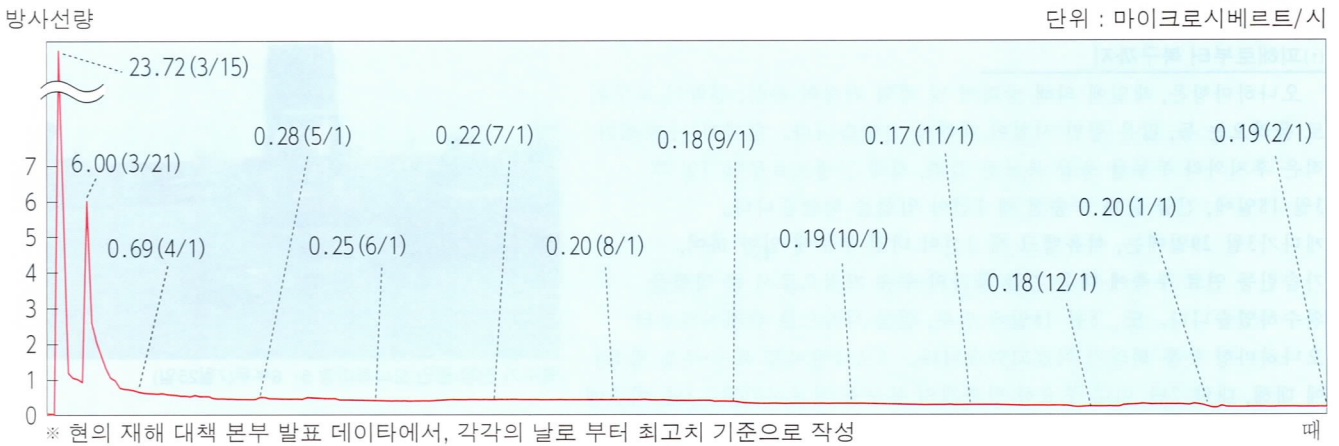
오나하마항 항만 계획 오나하마항 동항 완성시 이미지
(오나하마 항마 사무소 제공)

방출된 방사선에 대응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 사고에 의해 대기중에 방출된 대량의 방사성 물질. 현재, 본시의 방사선량은 거의 감소 하는 추세로, 원자력 사고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방사선 영향으로 불안하면서 생활을 하는 시민분들을 위해서, 시는, 독자적 판단하여 안정 요오드제 배포 및 교육시설 등 오염, 측정계를 대여하는 등, 원자력 사고 발생부터 여러가지 대처를 늘려 나아가면서, 시민분들에 대한 안심감,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본시 공간 방사선량의 추이

현재서는, 3월 13일 7시부터 현 이와키 합동 청사 주차장(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부터 남남서 약 43 km)에서 방사선량 측정을 개시. 지금까지 본시의 최대 방사선량은, 3월 15일 4시 23.72 마이크로시베르트/시로, 이후는 거의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2 스크리닝 검사의 실시·안정 요오드제 배포

(1) 긴급 방사능 스크리닝 검사

시에서는, 방사성 물질에 대해 시민분들의 건강 및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3월 13일부터 시 종합 보건 복지 센터에서, 방사선 스크리닝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2년 1월말 현재에 누계 39,048건의 검사를 실시를 했지만, 지금까지, 본시에서 제염을 필요로 하시는 분은 없었습니다.



시보건소에서 스크리닝 선별검사 (3월17일 : 미도리가와다케시 제공)

(2) 안정 요오드제의 배포

시에서는, 원자력 재해시용 방사성 요오드에 대한 예방약으로서 안정 요오드제를 비축해 두었지만, 원자력 발전 사고 수습이 보이지 않으므로, 시 독자적 판단으로, 3월 18일부터 임산부 및 40세 미만의 시민을 대상으로, 안정 요오드제를 배포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시내의 방사선량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복용 지시를 권고하고는 있지 않습니다만, 아직도 원자력 발전 사고가 수습 되어 있지 않는 상황, 또한, 배포한 안정 요오드제가 2011년 12월 유효기간이므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12월부터 새로운 안정 요오드제를 사전 배포하였습니다.



배포한 안정 요오드제

3 수도물 방사성 물질의 측정

정부는, 3월 16일부터, 본시의 수도물 방사성 물질의 측정을 개시하였습니다. 3월 21일에 채수한 수도물에 대해서, 3월 23일에, 정부가 정한 유아 섭취 지표치가 넘는 방사성 요오드 검출이 확인되므로, 같은 날부터 유아에 대해 수도물 식용을 하지 않도록 부탁과 동시에, 시 문화 센터나 각 지소에서 패트병 식수를 배포하였습니다.

3월 25일 이후에는, 방사성 요오드의 검출치가 섭취 지표치 이하로 되어, 3월28일에 채수 한 시내 8개소의 정수장 측정의 결과, 모두 정수장의 지표치가 크게 기준치를 밑돌면서, 3월 31일에는 섭취 제한을 해제하였습니다. 그 후, 4월 4일 이후에 대해서는, 방사성 요오드, 방사성 세슘과도 불검출 데이터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시 수도국에서는 10월 24일에, 수도물중 방사성 물질을 시 독자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수질 관리 센터에 게르마늄 반도체 검출기를 배치하여, 시내 12 개의 정수장 수도물 검사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4 모니터링 확대·총실

시에서는, 6월 13일부터 본청사와 각 지소의 청사 앞에 방사선량 측정을 개시하였습니다. 10월 11일부터는, 측정개소에 추오다이·토요마·이즈미 시민 서비스 센터 3개소를 추가하여 다른 지점에서도 지상 1m와 지상 1cm의 높이로 측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청사 이외에도 보육소 및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 단계적으로 공간 선량계를 배치.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 그 결과를 홈 페이지를 이용해 결과물을 알리고 있습니다.

5 제염의 추진

시에서는, 시민분들의 협력을 받으면서 제염 활동을 추진하고, 생활 환경 조기 회복을 목표로 하여, 구체적인 제염 작업 방법의 안내서 「이와키시 방사선량 저감을 위한 제염 메뉴얼」을 9월에 작성했습니다. 또한, 11월 1일에는, 독립 행정법인 일본 원자력 연구 개발 기구 테크니컬 어드바이저로, 본시에 거주하는 공학박사 호시즈다오씨를 시 방사선 저감 고문을 위촉하여, 방사선량 하였습니다. 저감을 위해 다양한 조언이나 지도를 받는 체제를 정비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이들의 생활 공간에 있어서 방사선량을 저감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염의 대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위촉을 받는 호시 고문
(11월1일)

(1)보육 시설· 교육 시설의 제염

시에서는, 보육 시설이나 교육 시설에 대해서, 전 시설의 세정 및 청소등을 행하고, 그 후, 정원이나 교정의 방사선량을 측정하여, 시가 당면 목표 수준으로 정한 매시간0.3 마이크로시베르트 이상의 시설에 대해서, 흙표면 제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흙표면 제거는, 12월말까지로, 대상이 되는 131 시설 중 101 시설이 완료 되어지고, 그 결과, 정원이나 교정 방사선량은, 흙표면 제거 전과 비교, 최대 약 80% 저감이 보여지고, 그 대상 시설 안에 가장 많은 저감으로는 50 %에서 70% 정도의 저감으로 보여졌습니다. 시는, 당면의 목표 수준으로 설정한 매시간 0.3 마이크로시베르트 이상의 시설에 대해 흙표면 제거를 실시 해 왔었지만, 그후, 정부가 새롭게 매시간 0.23 마이크로시베르트라는 기준을 제시하면서, 새롭게 보육 시설이나 교육 시설에 대해 상세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국소적으로 방사선량이 많은 개소등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제염 작업을 실시하는 등, 보다 낮은 선량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압 세척기로 교정을 청소하는오나하마 산소
(8월28일)

(2)도시공원의 제염

시에서는, 시가 관리하는 455개소의 도시 공원등 공간 방사선량을 조사하여, 매시간 1 마이크로시베르트 이상의 방사선량이 확인된 9개소의 공원에 대해서는, 흙표면 제거 및 놀이 기구 세정등 제염을 실시, 11월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3)생활공간 개선 사업의 실시

시에서는, 아이들의 생활공간으로 많은 시간을 활동하는 통학로등의 방사선량 저감을 도모하기 위해, 시 생활공간 개선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것은, 행정구 및 PTA등이 방사선량 측정 및 청소활동, 풀베기등 활동 비용으로, 1단체당 50만엔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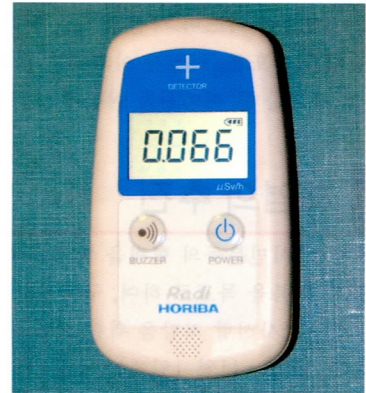
(4)제염 실시 계획의 책정

시는,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시민 생활을 영위하는데 안정한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추가 피폭 선량을 연간 1 미리시베르트 이하로 하는 것을 목표로 「시 제염실시 계획」(계획 기간: 2011년 12월부터 2016년 3월까지)을 12월에 책정되었습니다. 중점 기간으로 한 향후 2년에는, 방사선량이 비교적 높은 지역이나 아이들의 생활 공간이 되는 보육 시설·교육 시설 등에 제염을 우선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6 건강 관리의 추진

(1)방사선량계의 대출

임산부나 유아의 보호자가, 자기 건강 관리의 데이터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는 10월부터 적산 선량이나 공간 선량을 측정할 수 있는 디지털식의 소형 휴대선량의 대출을 실시하고 있고, 또한, 2012년 2월까지의 순차적으로 대상을 확대하고,고교생까지 실행하였습니다. 또한, 11월부터 보육소나 유치원, 초중학교 아동·학생에대한, 핸드폰 선량계를 대여 하고, 게다가 2012년 1월부터는, 시내 주거용 공간선량계를 대여 실시하였습니다.



대출을 하고 있는 공간 선량계

(2)전신에 의한 내부 피폭 검사

시에서는, 현에서 빌린 전신 내부 피폭 검사기를 이용하고, 11월부터, 선형조사로서내부 피폭 검사를 종합 이와키 공동 설립 병원에서 개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도에는 시 독자적으로 2대의 전신 내부 피폭 검사기를 정비하고, 대상지역을 확대하면서검사를 행하고 있습니다.

(3)자가 소비용 작물의 검사

시는, 11월부터12월에 걸쳐' 판매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정용 식료품 채소등의 자가 소비 작물 검사를 희망되는 분에 대해, 시내 전역을 순회하며 표면 스크리닝 검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베크레르모니타 등, 간이 방사능 측정기를 배치한 검사체제 정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와마에 활성화 센터에서 행한 순회 스크리닝 검사 (11월27일)

7 보육소· 학교 급식의 방사성 물질 검사

시는, 보육소 및 학교 급식에 사용하는 재료에 대해서,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안전한 재료를 골라서 사용하고 있지만, 보다 안전하고안심한 급식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2년 1월부터 보육소 및 학교에 사용하는 식재료의 방사성 물질 검사를 개시하였습니다.

또한, 검사의 결과는 홈 페이지에서도 공표하고 있습니다.

8 원자력 재해대책에 관한 체제정비

본시의 복구·부흥에 있어, 원자력 재해 대책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므로, 7월에 「원자력 재해 프로젝트팀」을 재해대책 본부에 설치하고, 공간 방사선량의 모니터링이나 각 부서에 방사성물질 검사등 종합조정, 게다가 제염 매뉴얼·계획 작성, 제염체제 정비등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2012년 1월 1일에는, 원자력 재해 대책에 대해, 전철적인 시점으로부터 신속하고도 종합적인 동시에 일체적으로 추진하고, 시민의 안전·안심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동일 프로젝트팀을 발전적 추진, 행정 경영부내에 「원자력 재해 대책과」 신설. 또한, 위기 관리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원자력 재해대책과 및 위기 관리과를 통괄하는 「위기 관리실」을 행정 경영부내에 설치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부 피폭 등 방사선 영향에 대해 신체적 불안과 방사선에 관한 건강 관리 대책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보건소내에 「방사선 건강 관리 센터」를 신설하였습니다.

주택 재건을 위해서

대지진에 대해일, 동일본 대지진은, 본시의 가옥 등 건축물에 심각한 피해를 주었습니다. 시에서는, 이재민분들의 조기 생활 재건을 위해서 고용 촉진 주택등 일시 제공 주택을 제공 할 수 있도록 대처하는 동시에, 이재민 증명을 신속하게 발행 및 주택의 응급수리, 게다가 파손 가옥의 해체 철거등, 지진 재해 직후부터 다양한 대처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1 일시 제공 주택의 제공

시에서는, 주택의 유출·파괴등에 의해 주택에 거주할 수 없게 된 시민분들에 대해, 하루라도 빠른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현에 의한 응급 가설 주택의 건설착공이전부터, 시내 고용 촉진 주택이나 민간 임대 주택의 일시 제공에 임해 왔습니다. 시가 알선한 일시 제공 주택에 대해서는, 3월 29일부터 모집을 시작하여 4월 16일부터 순서대로 입주를 개시할 수가 있었습니다.

민간 임대 주택의 특례 조치(본인이 수속하여 입주한 민간 임대 주택에 집세 공비 보조 제도)도 포함하면, 2012년 2월 1일 현재에는, 3,086세대(응급 가설 주택 143세대, 민간 임대주택 2,379세대, 고용 촉진 주택 558세대, 교직원 주택 6세대)가 일시 제공 주택에 입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 입주에 임해서는, 일본 적십자사로부터의 생활 가전 6점 세트 및 NTT에 의한 전화기를무상 제공등 생활 지원에서도 아울러 행해졌습니다.



이와키 뉴타운에는 1000세대의 가설주택이 지어졌습니다(7월12일)

2 이재민 증명서 발행

이재민이 의연금등의 각종 지원 제도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이재민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시에서는, 심각한 해일 피해를 받은 연안구역에 있는 건물 전동에 대한 현지조사를 3월 28일부터 개시하여, 4월 4일에는, 연안 구역의 「전괴」 판정 결과로부터 우선적으로 발행을 개시하였습니다.

또한, 4월 22일에는, 연안 구역의 전동조사가 종료한 것으로부터, 계속 된 지진 피해를 받은 가옥에 대해서도, 일동별 조사를 개시하여, 순서대로 증명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 1월 27일 현재 85,319건의 신청을 받았고, 83,172건의 증명서를 발행되어졌습니다.



응원직원에 의한 이재민 가옥 조사(4월2일 : 후쿠야마시 제공)

3 주택의 응급수리 제도

주택의 응급수리 제도는, 재해 받은 주택에 거주하기 위해, 본인이 스스로재해 받은 주택(반괴 이상)을 응급 수리할 수 없는 분에 대해, 지붕 및 외벽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 52만엔 한도를 시가 직접 발행 업체에 수리를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시는, 4월 11일부터 신청 접수를 개시하여, 2012년 1월 말 현재, 15,500건의 신청을 받았고, 그 중 6,227건에 대해서, 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4 파괴된 가옥 철거

3번에 걸치는 진도 6약의 대지진과 연속적인 여진에 의해, 본시의 수많은 가옥이 큰 피해를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시는, 지진 재해에 의해 손괴된 가옥을 철거 할 수 밖에 없어, 6월 1일부터 신청 접수를 개시하였습니다. 2012년 1월 14일 현재, 4,220건의 신청을 받았고, 1,300동의 해체 철거가 완료되었습니다.



재해 받은 가옥을 철거 하는 작업(7월15일)

행정 기관으로부터의 인적 지원

동일본 대지진 발생 이후, 본시의 복구·부흥에 임해서는, 전국 각지 많은 분들로부터 의연금 및 지원 물자등의 물적 지원을 추가 하여, 전국 각지 자치체 및 자위대등 많은 행정 기관분들로부터도, 다방면으로 재해 대응 업무의 인적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각지로 파견된 자위대 부대, 수색활동등 재해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3월21일 : 육상자위대 제8보병 부대 제공)

1 전국 행정 기관으로부터의 지원

이번 재해에서는, 수도 시설의 응급 복구 작업이나 응급 급수 활동을 추가하여 피난소 운영이나 지원 물자, 이재민 증명 관계 업무등, 다방면을 걸친 재해 대응 업무에 대해, 전국 각지 자치체 및 자위대등, 다양한 행정 기관에서 많은 인적 지원을 받았습니다.현재도, 본시의 복구·부흥을 위해서 전국 자치체로부터 직원이 파견되어 그 수는 지진 재해 이래 1만5천명(경찰, 자위대 제외) 정도로 달하고 있습니다.



형제도시 유리혼조시 직원에 의한 시세금감면 신청접수 (9월14일)

●응원을 받은 전국 행정 기관 일람

○정부 기관	○자치체 등
경제 산업성, 재무성(동북재무국, 이와키세무서등)	【지방 공공 단체】 도쿄, 나가사키현, 오오이다현 【도시지역】 이와미자와시, 키다히로시마시, 아오모리시, 유리혼조시, 미나미아이즈지역, 사메가와지역, 타카하기시, 아시카가시, 마에바시시, 가와고에시, 아게오시, 토다시, 츠루가시마시, 이나지역, 오가와지역, 후나바시, 도쿄 미나토구, 도쿄오오타구, 도쿄 센타가야구, 도쿄 시부야구, 도쿄 시장회, 하치오지시, 마치다시, 쿠로베시, 시바다시, 이토이가와시, 고센시, 조우에츠키시, 우오네마시, 우에다시, 기후시, 모토스시, 군조시, 모요하시시, 니시오시, 요카이치시, 나카하마시, 히가시오우미시, 고베시, 마츠에시, 쿠라시키시, 타마노시, 히로시마시, 후쿠시마시, 미요시시, 하츠카이치시, 우베시, 슈우난시, 산우오노다시, 미요시시, 타카마츠시, 마루가메시, 사카이데시, 간온지시, 우치고지역, 고우치시, 이이즈카시, 카라츠시, 나가사마시, 시마바라시, 오오무라시, 벳푸시, 미야코노조우시, 노베오카시, 카고시마시, 아쿠네시, 이즈미시, 히오키시, 미나미사츠마시, 사츠마센다이시
○자위대 부대	
【육상 자위대】 제6포병연대, 제6고성포병대대 (이상, 코리야마시) 포병대대 (이상, 코리야마시), 제6 음악대대 (히가시네시), 동북 방면 통신군 (센다이시), 제2 보병 연대 (조에츠키시), 중앙 대비 연대 (우츠노미야시), 중앙 대비 집단 지령부 부대, 동부 방면 통신군, 동부 방면 헌병대, 중앙 음악대 (이상, 아사카시), 제1낙하산단 (나라시노시), 동부 방면헌성단 (요코스카시), 제8 보병 연대 (요나고시), 제8 화학 방호대 (쿠마모토시) 【해상 자위대】 해상 자위대 해재 부대 【항공 자위대】 항공 자위대 공재 부대	
○경찰 관계	○수도사업체
경찰청의 1도 2부 35 현경찰 본부	【지방 공공 단체】 도쿄, 카나가와현, 오키나와현 【도시지역】 아이즈와카마츠시, 코리야마시, 후루도노지역, 키다이바라키시, 모리야시, 반도우시, 키류우시, 사이타마시, 요코하마시, 고후시, 후쿠야마시, 기타큐우시, 카라츠시, 나가사키시, 시마바라시, 오오이타시, 벳푸시, 키츠키시미야자키시, 미야고노조시, 노베오카시, 휴우카시, 카노야시, 아쿠네시, 사츠마센다이시, 타루미즈시, 우라소에시, 나고시, 나하시 【기업단체】 후타바 지방 수도기업단, 사카도·츠히가시마 수도기업단니시카시 수도기업단
○긴급 소방 원조대	
치바현, 카나가와현, 군마현, 시즈오카현, 기후현 시가현	
○현내 소방본부	
코리야마 지방 광역 소방 조합, 스카가와 지방 광역시 도시권조합, 기타가타 지방 광역시 도시권 조합, 아다치 지방 행정 사무조합, 아이즈와카마츠 지방 광역시 도시권 조합	

※계속 포함 중임

자원봉사의 활동

전국 각지로부터 자원봉사 신청이 끊이지 않는 중에, 시 및 시 사회 복지 협의회등에서, 재해 구원 자원 봉사 센터등을 개설하여, 자원봉사와 재해주민들의 중개 역할등을 실시해 왔습니다. 지금까지5만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분들이, 본시의 복구·부흥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 및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 자원봉사의 활약

시와 사회복지협의회, 재해 자원봉사 이과키는, 3월 16일부터 자원봉사 접수를 개시했습니다. 그 후, NPO등시민분들에 의한 자원봉사 센터도 설립 되고, 지금까지시내외로부터 5만명을 넘는 자원봉사자분들이, 피난소 운영 보조 및 급수 활동 지원, 생활상담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또, 한편, 스스로 단체를 구성하여, 지역 주민이나 시외의 자원봉사 단체와 제휴하여 지원 물자 배포나 재해 쓰레기의 분리·운반·가구 이동·정리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히사노하마지역에서 지원활동을 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6월5일)

2 각 자원봉사 센터의 대처

(1)재해 구원 자원봉사 센터

시와 사회복지협의회, 재해 자원봉사 이과키는, 3월 16일 시와 사회복지협의회에 「시 재해 구원 자원봉사 센터」를 개설하고, 자원봉사의 등록 및 파견요구 접수 및 이재민과 자원봉사와의 중개역할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 후, 지역 NPO가 중심이 되어, 4월 9일에는 「나코소지구 자원봉사 센터」가, 4월 19일에는 「오나하마 지구 자원봉사 센터」가 차례차례 설립되, 많은 자원봉사자가 피난소 지원이나 가옥 청소, 진흙제거, 재해 쓰레기 철거 등, 여러가지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각 자원봉사 센터에서는, 큐슈 지구를 시작하여 전국의 사회 복지 협의회 및 재해 자원봉사 활동 지원 프로젝트 회의등에서 연 350명이 넘는 직원의 지원을 얻어 운영해 왔습니다.



시 재해 구호 자원봉사 센터에 자원봉사 접수 (4월21일 : 시사회복지 협의회 제공)

(2)부흥 지원 자원봉사 센터

이재민의 일시 제공 주택에 입주가 진행되는 등, 지진 재해로부터 반년 정도가 경과, 이재민의 요구가 여태까지는 「재해 구원」이었지만 지금은 「생활 지원」이나 「커뮤니티 만들기」 등으로 변화해 나갔습니다. 이를 위해, 「나코소 지구 재해 자원봉사 센터」는 6월6일에 「나코소 부흥 프로젝트」 명칭·기능을 변경. 「시 재해구원 자원봉사 센터」 및 「오나하마 지구 재해 자원봉사 센터」는8월8일에, 각각 「시 부흥지원 자원봉사 센터」 「오나하마 지구 부흥지원 자원봉사 센터」 명칭·기능을 변경하였습니다. 현재는, 이재민의 개별 요구를 파악하여 생활 부흥을 위한 지원, 사교실·다회등에 위한지역 교류장 만들기, 정기적인 방문등의 생활 상담을 중심으로 한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응급 가설 주택을 순회하는상담원 (11월17일 : 시사회복지 협의회 제공)

시내 공립소· 중학교의 재개

동일본 대지진에 의해, 시내 공립 초중학교는 다음날부터 전교 휴교가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는, 4월6일 신년도 등교가 시작되었지만, 4월 11일의 대규모 여진에 의해, 다음날 12일에 다시 휴교가 되는 등, 지진 재해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시는, 재해 학교의 타교 기능 이전 및 급식재개, 스쿨 런치 제공등, 본시의 차세대를 이끌어 가는 아동·학생의 건강한 학교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대응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1 수업 재개의 일정

동일본 대지진에 의해, 시내 공립 초중학교 건물이 약 90% 피해를 받았고, 특히연안부에 입지 한 나가사키 초등학교, 토요마 중학교, 요츠쿠라 중학교 등은, 해일에 의해교실 1층이 침수 되는 등, 큰 피해를 받았습니다. 또한, 히사노하마 제1초등학교, 제2초등학교, 히사노하마 중학교의 3교에 대해서는, 원자력 발전 사고 영향에 의해 옥내 퇴피 지시 구역으로 설정되게 되었습니다. (4월 22일 해제)

이와 같이 다양한 피해 및 영향을 받은 본시의 학교 상황이지만, 4월 6일에는 입학식을 실시하여, 신년도를 출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교의 학교 재개가 곤란한 4개 초등학교와3개의 중학교에 대해서는, 시 문화센터에서 합동 입학식을 실시, 시내 타교에 기능 이전에 의한 학교 일정을 재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후, 4월 11일의 대규모 여진에 의해, 다음날 12일에는 재차 전교 휴교가 되었지만, 4월 18일에 다시 수업이 시작하는 동시에, 타교에 이전 했던 히사노하마 제1초등학교, 제2 초등학교, 히사노하마 중학교, 다비토 중학교, 요츠쿠라 중학교(3년생 만)에 대해서는, 차례차례 자교에서 수업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우에다소학교 교정이 심하게지면이 갈라진 모습 (4월6일)



3년생만으로 수업을 재개한 요츠쿠라 수업 중 (2012년1월17일)

2 급식 재개· 스쿨 런치의 제공

지진 재해에 의해, 시내 8개의 급식 조리장 모두 피해를 받아 시내 초중학교에 대한 급식을 제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전 시설을 단기간 복구하기가 곤란함에 따라, 우선 4월 25일에 시내 전 초중학교에 빵·우유의 제공을 개시하고, 5월 2일에는, 빵·우유에, 간이 부식·디저트를 더한 간이 급식을 제공을 하였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급식 재개를 위해 각 급식 조리장 복구 공사를 진행시켜 6월 6일에, 피해가 적었던 급식 조리장이 피해가 큰 급식 조리장을 커버하는 것으로, 주 교대로 통상 급식과 간이 급식 제공을 개시, 2 학기부터는, 전 초중학교에서 통상 급식을 재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해 후의 시내 급식 조리장의 가동 능력으로는 초등학교에 제공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학교에 대해서는 통상 급식 제공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영양 밸런스 및 학생들의 만족감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통상 급식 대신으로 2 학기부터 스쿨 런치를 제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덧붙여, 3학기부터는 시내 전 초중학교의 급식 식재에 대해서, 매일 방사선량 측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에나소학교에서 급식 지원하는 자위대원 (4월27일)



2학기부터 제공 되는 스쿨 런치

거짓정보의 피해 불식을 위해

원자력 발전 사고의 발생 이래, 농산물에 대해서는, 『후쿠시마산』 또는 『이와키산』 이란 표시에 의해, 시장 및 거래처로부터 수락을 거부 받거나 소비자에게 외면받는 사태가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농산물 이외에도, 물산품이나 공업제품에 대한 외면 및 관광객의 감소하는 등, 본시는 여러가지 거짓정보 피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불식시키기 위해, 시는, 『힘내요! 이와키』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어 거짓정보 피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다양한 대처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1 농산물

『힘내요! 이와키』의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시내외, 4월 도쿄 항구 미나토구 JR신바시 역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일본 전국 각지에 50회 이상의 이벤트 「전국 일본 순회를 개최를 하는 등, 본시 농산물에 PR 및 판매를 통하여, 거짓정보 피해를 없애기 위해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키 브랜드 농산물 통신」 및 「그림 엽서」 등, 팬시 매체를 활용한 캠페인이나, 본시 농산물 정보를 발신하는 포털 사이트 「음식이 맛있는! 이와키」, 「보입니다! 이와키 정보국」의 개설, 또한 텔레비전 CM 등, 소비자분들에 대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도쿄 중심부 나가노구에서 개최된 「이와키 부흥제in도쿄」에 시의 농산물을 판매 (11월21일)

2 관광· 물산품

동일본 대지진이나 원자력 발전 사고에 의한 거짓정보로, 본시 물산품의 이미지가 현저하게 저하되어, 시는, (주) 이와키 관광지 만들기 부로와 제휴하면서, 물산품의 이미지 회복을 위해 지금까지 50회 이상, 수도권에서 개최되는 물산품이나 부흥 이벤트에 참가. 또한, 감소한 판로의 확대를 위해서 상담회등 적극적으로 참가, 본시 물산품 PR를 실시했습니다. 한편, 관광산업 침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밀접한 관계를 구축한 현재의 근린 자치체와 제휴, 본시에 관광객 유치 효과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JR미토역에서 개최된 「언제든지와 주세요! 이와키 후쿠시마 전국 순회」에서 시내 물산품을 판매 (8월31일)

3 공업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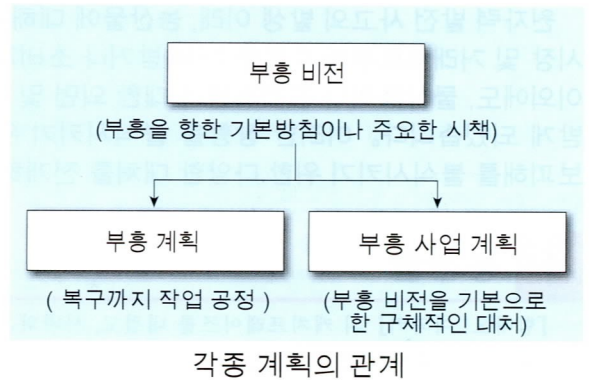
거짓정보에 의한 피해는 공업제품에도 미치고 있어 시내 제조업의 부흥을 위해서 수도권등에서 개최된 전시회나 상품 전시회에서 시내 공업제품을 출전하여, 시내 공업제품의 PR과 함께, 거래 확대를 위해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4월20일에 이와키 오나하마 모터 클럽에서 방사선 측정기의 기증을 받아 공업제품에 대한 방사선 측정 체계가 갖추어진, 4월 25일부터 시내 기업에서 출하전의 공업제품에 대한 잔류 방사선 측정을 개시하였습니다. 동북 제 1위 제조품 출하액을 자랑했던 공업도시로서 공업제품에 대한 거짓정보 피해의 불식 및 생산·출하·거래라고 하는 일련의 경제활동이 지진 재해전의 수준으로 되찾기 위한 대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쿄 빅 사이트에서 개최된 환경 전시회 「제13회 환경 자연 생산품2011」에 시내기업등이 출전 (12월15일)

부흥을 향한 발걸음

시는, 이와키를 지진 재해전의 수준으로 되돌리 뿐만 아니라, 재해전보다 더욱 더 활력과 생기가 흘러 넘치는 도시를 위해, 본격적으로 대처를 시작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행정 조직 개정이나 복구·부흥을 향한 각종 계획을 책정, 게다가 부흥을 향한 각종 이벤트등을 진행시켜 왔습니다. 향후도, 「이와키 부흥이 일본 전체의 부흥으로 연결된다」라는 강한 메시지와, 시민분들이 안전·안심하고 살 수 있는 마을 만들기를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올 이와키」체제로 부흥을 향해 임할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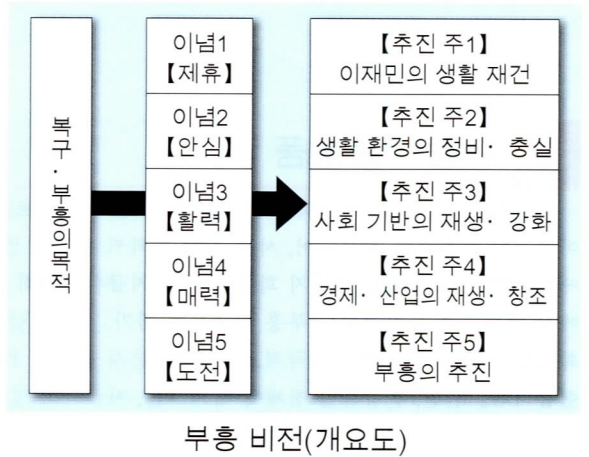


1 이와키의 재생과 부흥을 향한 조직을 구축

시는, 이와키의 재생과 부흥을 위해 전 관청 일환으로, 6월 1일에,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이와키시 동일본 대지진 부흥 본부」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동일본 행정 조직 개정에 의해, 복구·부흥을 위해 다양한 대처를 통괄한 「부흥감」을 설치하는 동시에, 이재민의 생활 재건을 향한 전 관청적인 각종 지원책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행정 경영 과내에 「부흥 지원실」을 설치하였습니다.

2 이와키시 부흥 비전의 책정

재해로부터 시의 복구·부흥에 위한, 사고방식 프로세스, 게다가 목표인 「부흥의 모습」을 명확하게 하고, 시민분들과 공유해 나가기 위해, 부흥을 향한 기본 방침 및 주요한 시책등을 나타내는 「시 부흥 비전」을 9월 30일에 책정하였습니다. 비전은, 「일본의 부흥을 「이와키」로부터」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어 전례가 없던 복합 재해에 휩쓸린 후쿠시마현 하마도오리 지역 거점으로서, 시민의 안전·안심을 최대한 확보하여, 재해전보다 더욱 더 활력과 생기가 흘러 넘치는 도시, 세계에 부흥 재생 모델 도시 「이와키」를 만들기 위해, 「제휴」 「안심」 「활력」 「매력」 「도전」의 5개를 복구·부흥 이념으로, 대처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전의 추진 기간은, 10년 후의 모습으로 재생 후 이미지를 바라보면서, 복구·부흥을 위해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약 5년간으로, 집중적으로 대처 실행하고 있습니다.



시 복구·부흥 계획검토 위원회부터 「시 부흥 비전」에 대한 제언 (9월28일)

3 이와키시 복구 계획을 책정

동일본 대지진에 의한 대지진·큰 해일, 게다가 4월 대규모 여진에 의해, 본시의 사회 기반등이 심각한 피해를 받았지만, 시는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 시민 생활의 안정과 생활의 재건을 위해 라이프 라인 복구 및 시민 생활에 직결하는 시설 개수등을 열심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재해 받은 공공 시설이나 도로 등이 대표되는 사회 기반의 복구로, 10월 18일에, 복구에 관한 공정표 「이와키시 복구 계획」을 책정하였습니다. 향후, 이 공정표 실시를 의해,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 조기 복구를 도모할 것입니다.

4 이와키시 부흥 사업 계획 책정

시는, 「시 부흥 비전」에 기준하여 구체적인 대처를 표시한 「시 부흥 사업 계획」을 12월26일에 책정을 하였습니다. 본 계획에서는, 부흥 비전으로 정한 5의 「대처의 주」에 따라, 합계 168의 대처를 체계별로 내걸고, 또한, 해일 재해지역의 부흥이나 재해 공영 주택의 정비, 원자력 재해 대책 등, 특별히 중점적으로 필요한 시책 「중점 시책」(9 시책)을 내걸고, 시의 조기 부흥을 위해 임할 것입니다.

【부흥 사업 계획 체계도】

추진 주 1 이재민의 생활 재건 (30항목 추진)

재해 받은 시민분들과 함께, 주택 및 생활의 재건이나 안정을 향한 종합적인 추진을 진행합니다.
【주요 추진】재해 공영 주택의 정비, 모니터링 실시 등

추진 주 2 생활 환경의 정비·충실 (59항목 추진)

의료·복지 체제 강화, 육아·교육 환경의 정비, 지역힘의 강화 등,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생활 환경의 정비·충실 및 재해 대응력 강화에 대처합니다.
【주요 추진】지역 방재 계획의 재검토, 제염 실시 등

추진 주 3 사회 기반의 재생·강화 (16항목 추진)

재해에 강한 사회자본을 정비하는 것과 동시에, 피해가커던 연안 지역등에 대해 지역 특성에 대응한 재생을하는 등, 시민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는 사회 기반의 재생·강화에 대처합니다.
【주요 추진】재해 시가지 부흥 토지구획 정리 사업 등

추진 주 4 경제·산업의 재생·창조 (49항목 추진)

시민 생활의 기반이고, 도시 활력의 근원인 지역 경제의 재생 부흥을 도모하기 위해, 농림 수산업 재생은 물론이고 지역 기업의 경영 재건 및 새로운 산업의 창출등에대처합니다.
【주요 추진】해상 풍력 발전 도입을 향한 조사 연구, 공장등의 유치 촉진 등

추진 주 5 부흥의 추진 (14항목 추진)

정부·현과 제휴를 강화하는 것 외에 부흥에 필요한 조직을재검토 및 재원 확보등에 대하는 등, 부흥을 추진하기위해서 필요한 체제 구축에 대처합니다.
【주요 추진】복구·부흥을 향해 조직체제의 재편·강화 등

【부흥 사업 계획 중점시책】

1 해일 재해 지역의 부흥을 향한 토지 이용 프로젝트

2 재해 공영 주택의 정비에 관한 프로젝트

3 심신 수양의 프로젝트

4 원자력 재해 대책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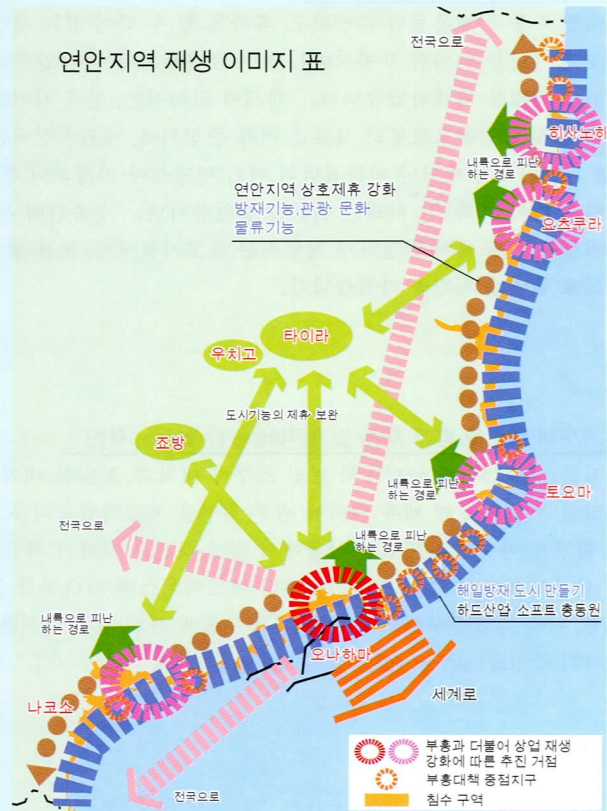
5 오나하마항 주변지역 정비·재생 프로젝트

6 재생 가능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산업 진흥 프로젝트

7 기존 지역 산업의 재생 프로젝트

8 기업 유치 대책 프로젝트

9 재해지역의 자치체와의 제휴 강화 프로젝트



5 재해로부터 1년간 주요 대처

시는, 재해전에보다 활력과 생기가 흘러 넘치는 도시를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대처 진행시켜 왔습니다. 또한, 재해로부터 1년간에, 주요 관광 시설이 연이어 재개를 하는 등 밝은 모습도 보여졌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대처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1) 『힘내요! 이와키 응원단』 창설

시는, 「힘내요! 이와키」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행정, 기업, 개인, 상관없이 누구든지 「이와키의 부흥」이라는 목표 아래 마음을 하나로 묶는 에너지를 양성하는 동시에, 이와키 지원론을 확산시키기 위해, 「힘내요! 이와키 응원단」를 5월에 창설을 하였습니다. 수도권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약 1,000명이 등록되어, 부흥 이벤트 개최 및 이와키 농수산물 구입등, 자주적인 활동을 통해서 고향인 「이와키」를 많은 응원을 해 주셨습니다.



응원단의 심벌 『힘내요! 이와키 리스트밴드』

(2) 「이와키 타이라 경륜장」 재개

이와키 타이라 경륜장은, 전국으로부터의 지원 물자를 일괄해 취급하는 지원 물자센터로서 또한, DMAT 및 타자치체로부터의 과격지원 숙박 장소로서 활용하는 등, 재해 복구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만, 이전, 경륜로의 균열등 재해에 발생한 피해를 수선을 하여 6월 2일에 장의 차권 발매, 6월 20일에는 본 경기장을 재개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의 부흥을 위해 「부흥 경륜」이라는 레이스 개최 및 일본 경륜 선수회에 의한 이벤트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격렬한 레이스가 펼쳐진 부흥 경륜 (2012년1월21일)

(3) 「아쿠아마린 후쿠시마」 재개

해일로 동력 계통등이 손상되고, 휴관을 할 수 밖에 없는 해양 과학관 「아쿠아 마린 후쿠시마」가, 11번째 개관 기념일이 되는 7월 15일에 영업을 재개하였습니다. 재개에 있어서는, 전국 각지의 수족관 및 동물원으로부터 새로운 어류 증정외에, 개관식전에는, 4월 피난처에서 태어난 바다표범의 아기 명명식이 거행되어 부흥의 소원을 담아 「희망」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수족관에 온 많은 아이들은, 수조에서 건강하게 헤엄치는 물고기들에게, 눈을 땔 수 없을 정도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픈 당일, 많은 사람들이 방문한 아쿠아마린 후쿠시마

(4) 『재해 부흥을 향한 제휴 및 협력에 관한 협정』 추진

시는, 8월10일에 국립대학 법인 즈쿠바 대학과,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부흥을 위해 제휴 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협정을 바탕으로 위험한 상황에서 생명·재산을 지키기 위한 대처 및 원자력 재해에 대한 전문가로부터 어드바이스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내 대학등에서도 본시의 복구·부흥에 관한 과제 해결을 위해, 각자의 장점을 살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협정을 체결하고, 악수를 주고 받는 시장과 즈쿠바대학의 야마다 학장 (좌)

(5) 히사노하마 가설 점포· 사무실 『하마가제 상가』 가 오픈

시는, 해일·화재등에 의해 상가가 거의 전 지역으로 심각한 피해를 받은 히사노하마 지구의 상업자 및 지역 주민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독립 행정법인 중소기업 기반 정비기구가 실시한 「가설 시설 정비사업」을 활용하고 히사노하마 제1초등학교 교정의 일부에 가설 점포·사무소를 정비하였습니다. 9월 3일에, 전국 제 1호 가설 점포로서 「하마가제 상가」가 오픈되고, 상가를 이용하는 고객들로 붐볐습니다.



하마가제 상가 오픈 테이프 컷

(6) 『힘내요! 이와키 부흥제』 개최

시는, 동일본 대지진에 의해, 중요한 가족과 정든 집을 잃어버리는 등, 큰 피해를 받은 시민분들과 본시로 피난한 근린 자치체분들이, 함께 손을 잡아 본시의 부흥과 더욱 더 발전을 위한 걸음의 계기로, 시의 제도 시행 45주년 기념일인 10월1일, 2일에 걸쳐, 「21 세기의 숲공원」에서 「힘내요! 이와키 부흥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부흥제에는, 시내는 물론, 수도권, 근현으로부터의 방문하는등, 2일간 총계 10만명이 넘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부흥의 기원을 담은 이와키 오도리를 춤추는 참가자

(7) 「이와키·라·라·뮤」 리뉴얼 오픈

「이와키·라·라·뮤 (이와키시 관광물산 센터)」는, 동일본 대지진에 의한 지진과 해일로 큰 피해를 받았습니다만, 고난을 극복한 복구 작업의 결과, 약 8개월만이 되는 11월25일에 재오픈을 했습니다. 리뉴얼에 있어서는, 태풍과 고조의 예방책으로 해측 높이75cm, 길이 80m의 알루미늄계 제방 패널을 신설하였습니다. 재개 당일에는, 많은 자녀들과 방문하여 리뉴얼 후 중심이 되는 동북 최대급인 육내형 놀이터 「왕과쿠 히로바 뮤뮤」에서 많은 아이들이 다양한 놀이 도구를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오프링의 일원으로, 「동일본 대재해 이와키시 사진전」을 개최하여, 많은 관람객들이 시의 피해 상황 및 부흥의 관련 사진을 관람하였습니다.



재개발을 먼저 실현한 「이와키 라·라·뮤」 리뉴얼 오픈 개최식

(8) 『부흥 기원 제3회 이와키 선샤인 마라톤』을 개최

시에서는, 2012년 2월 12일에, 본시의 부흥을 기원하는 대회로서 「제3회 이와키 선샤인 마라톤」을 개최되었습니다. 본 대회는, 코스 피해에 의해 개최가 될지 의심스러운 시기가 있었지만, 많은 분들의 지원과 협력 아래, 무사히 개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회 당일에는, 스포츠 저널리스트 마스다 아케미씨

및 하코네 역전 마라톤에서 활약한 카시와 바라류지씨, 올림픽 메달 리스트 아리모리 유우코씨가 응원하러 이와키시에 오셨습니다. 길가에 많은 분들이 응원하러 물려들고, 전국 각 지역에서 모인 선수들이 홀라겔스의 고향을 힘차게 달려 나아갔습니다.



▲완주를 목표로 힘차게 달려 나아가는 선수들

◀제1관문에서 참가자를 격려하는 게스트 카시와 바라류지씨

재해로부터 주요 경과경과 (~4월30일)

■청색글자 : 시의 활동

■적색글자 : 후쿠시마 제1원자력 사고

▶ 3월11일 (금) 【재해 발생 첫날】



아침6시경 우스이스 해안의 온화한 바다 (kouichi Seya 씨 제공)

- 14 : 46 산리쿠 앞바다 진원에서 동북지방 태평양바다 지진 (M9.0) 발생 (본시 진도6약)
이 지진으로 후쿠시마 제1원자력1 ~ 3호기가 자동정지
- 14 : 49 기상청, 대해일 경보를 발령
- 14 : 50 시 재해 대책 본부를 설치 (시 소방 청사내)
피난소 개설, 식료·침구등 조달 개시
- 14 : 51 시내 연안부 전지역에 대해, 방재 무선에서 피난 지시
- 14 : 52 오나하마에서 해일 제 1파(1.0 m)를 관측
- 15 : 39 오나하마에서 최대 3.3 m의 해일을 관측
- 15 : 42 후쿠시마 제1원자력1 ~ 3호기 전부 교류전원이 상실
- 15 : 45 시내 연안부 전역에 대해, 사이렌 발동 및 재피난 지시
- 16 : 30 후쿠시마현 지사에 대해, 자위대 파견 요청
- 16 : 36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 1, 2호기에서 비상용 노심 냉각 설치 기능 불능
- 17 : 55 임시 시장 기자 회견을 개최(전력으로 지진 재해에 대응)
- 18 : 00 수도국으로부터 단수, 절수 협력의 안내문
구급 병원, 인공 투석 병원에 순회 급수 개시
- 19 : 03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에 대해, 긴급사태 선언이 발령
- 21 : 23 총리에서,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 반경 3 km권내 피난, 3 km ~ 10km 권내 옥내 퇴피 지시 발령
- 23 : 00 육상 자위대 도착·재해 지원 활동 개시
 - 피난소에 식료 배송을 개시 (~ 8/19)
 - 시내 전지역이 약13만호가 단수
 - 비상용 지하 저수조등에 의한 시민들에게 급수 개시
 - JR조방선, 반에츠하가시선 운전중지
 - 조방 자동차도로, 반에츠자동차도로가 통행금지
 - 후쿠시마공항 운행 리무진버스가 통상대로 운행

▶ 3월12일 (토)

- 04 : 10 일본 적십자사 후쿠시마 지부에 DMAT 파견 요청
- 05 : 44 총리에서,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 반경 10 km권내의 피난 지시 발령
- 07 : 45 후쿠시마 제2 원자력 발전에 대해, 긴급사태 선언이 발령 (12/26해제) 총리에서, 후쿠시마 제 2 원자력 발전의 반경 3 km권내 피난, 3 km ~ 10km 권내의 옥내 퇴피 지시 발령
- 08 : 00 긴급 소방 원조대·소방·소방단·DMAT 공동으로, 시내 연안부 전역으로의 구조·구명 활동을 개시
- 10 : 00 피난소 127개소, 피난자수 19,813명(최대)

- 10 : 17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 1호기, 베트 개시
- 11 : 00 조방자동차도로, 반에츠 자동차도로가 긴급 교통로로 지정
- 15 : 00 구급소방구조대가 시내 연안부에서 구조,구명 활동을 개시
- 15 : 36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 1호기, 수소 폭발이 발생
- 17 : 39 총리에서, 후쿠시마 제2 원자력 발전 반경 10 km권내 피난 지시 발령
- 18 : 25 총리에서,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 반경 20 km권내 피난 지시 발령
- 19 : 04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 1호기, 원자로에 해수 주입
 - 시장이 코멘트 발표 (마음을 진정 및 외출 금지 의뢰)
 - 고령자등 안부 확인개시
 - 송수계 기간관로 복구가 완료되고, 배수지에 송수를 재개
 - 시내21개소에 급수소를 설치하고, 풍반식 급수조 등에 의한 급수를 재개
 - 이와키 타이라 경륜장에, 지원 물자 집배 센터를 개설
 - 재해 대책 본부에 안부 정보 코너를 설치
 - 해일 재해지구에, 도로상등 재해 쓰레기 철거 개시(~4 월상순)
 - 자위대, 구급 소방구조대원, 시소방본부, 소방단이 공동으로, 시내 연안부 전역을 구조,구명활동을 개시
 - JMAT가 활동을 개시 (~5/3)
 - 후쿠시마공항에 임시편 (이다미 공항선)을 설정 (~3/31)

▶ 3월13일 (일)

- 05 : 10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 3호기 냉각 기능 상실
- 08 : 30 시 독자적 판단으로, 히사노하마·오오쿠 지구에 독립 피난 요청, 긴급 수송 버스로 피난 이동 개시 (정부에 의한 옥내 퇴피 지시는 3/15 11:00발령)
- 08 : 30 자위대, 경찰, 긴급소방구조대, 시소방본부, 소방단이 공동으로, 시내 연안부 전지역을 구조,구명활동을 개시(~3/14)
- 17 : 58 해일 주의보 해제에 따른, 시내 연안부 전역에 대한 피난 지시를 해제
 - 기간 정수장, 시 수도국 본청사에서 24 시간 급수 개시
 - 간이수도 구역 다비토·도노·가와마에 일부에서 급수가 가능
 - 시 종합 이와키 교리츠 병원, 후쿠시마 노재병원 등에 통수
 - 시 휴일 야간 응급 진료소, 진료 재개
 - 교통수단, 쓰레기 수집등이 중지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광고
 - 시 보건소에서, 방사선 스크리닝 검사 개시
 - 시 종합 이와키 교리츠 병원의료 스태프가 피난소 순회 진료 개시 (~4/28)
 - 후쿠시마 공항에 임시편 (하네다 공항선, 중부 공항선, 신치토세 공항선)을 설정 (하네다~4/10, 중부~3/31, 신치토세~3/24)

▶ 3월14일 (월)

- 11 : 01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 3호기, 수소 폭발이 발생
- 13 : 25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 2호기, 냉각 기능이 상실
 - 시약소 창구업무를 일부 재개 (이후, 순차 재개)
 - 외국인 상담 창구를 개설
 - 피난소 쓰레기·피난소 분뇨 수집 개시
 - 시 공식 홈 페이지에 「재해 관련 메뉴」 추가

- 재해 의료 기관으로부터 전원 반송 개시 (3/24, 25)
- 후쿠시마 공항에 지원 물자가 도착, 현내 각지역에 반송(~5/2)

▶ 3월15일 (화)

- 04 : 00 시내에서 최대 방사선량을 관측(23.72 μ SV /시)
- 06 : 10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 2호기 충격음
- 06 : 14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 4호기 폭발에 의한 일부 손상
- 09 : 30 시 독자적 판단으로, 오가와지역 카미오가와아자 토와다지구, 가와마에지역 시모오케우리 지구의 일부(시다묘·오기)에 독립 피난 요청 (정부에 의한 옥내 퇴피 지시는, 동일 11:00발령)
- 09 : 45 시장이 메시지를 발표 (불필요한 외출은 삼가에 대한 부탁의 말씀)
- 11 : 00 총리에서,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 반경 20 ~ 30km 권내의 옥내 퇴피 지시 발령 (오가와·가와마에·히사노하마·오히사지역의 일부가 대상 구역으로 설정)
- 13 : 17 원전 피난 때문에, 조방자동차도로 이와키 미와IC·오노IC, 조방자동차도로 이와키 나코소 IC·이와키 유모토IC·이와키 츄오IC를 개방
- 오방 활동【민주당·자민당 관계】(피난처 확보, 물자 확보)
- 휴일 구급 치과 진료의 개시(~4/3)
- 중증 환자의 관의 의료 기관으로 구급 반송 개시(~3/30)

▶ 3월16일 (수)



시민이 보이지 않는 오전 8시30분경 이와키 역앞 (FM이와키 제공)

- 05 : 45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 4호기 4층 부분, 화재 발생 확인
- 08 : 30 자위대·경찰·소방·소방단 공동으로, 시내 연안부 수색 활동을 개시(~4/26)
- 10 : 40 시장 메시지 발표(시민분들에게 냉정한 행동의 부탁 말씀, 의약품 제공, 피난소에 배송 업무, 수도 복구 작업 협력의 부탁 말씀)
- 수도물 방사성 물질의 측정을 개시
- 재해 건축물 응급 위험도 판정 개시(~6/5)
- 정부 및 현과 공동으로, 탱크로리 8대를 투입하여, 시내 11개 급유소에 가솔린과 경유를 공급
- 오나하마 석유에 비축 연료를 공공 방출 요청
- 시 재해 구원 자원봉사 센터 개설
- 오나하마항 후지와라 부두, 긴급 물자 수입 안벽 공용을 개시

▶ 3월17일 (목)

- 08 : 30 조방 니시고우 지역 츄다지구에 피난 권고

- 09 : 30 시장이 코멘트를 발표(정부조달 가솔린 공급에 대해)
- 09 : 48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 3호기, 육상 자위대 헬기에 의해 사용제 연료장에 살수(약 30 t)를 개시(~10:01)
- 시 의연금, 접수 개시
- 쿠사노 초등학교에서 자위대 입욕 서비스 개시(~3/19)

▶ 3월18일 (금)

- 09 : 00 시장이 메시지를 발표 (안정 요오드제 배포에 대해) →입산부·40세 미만분들에게, 안정 요오드제 배포를 개시
- 17 : 48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 사고에 대해, 원자력 안전·보안원 인 INES (국제원자력·방사선사상 평가표준)잠정 평가 결과는 1호기,2호기 3호기는 레벨 5, 4호기는 레벨 3을 발표 (4/12에는 1호기, 2호기, 3호기에 대해 레벨 7인상)
- 시립 유치원, 초등학교 졸업식 중지
- 고속버스 이와키~도쿄선 운행이 재개
- 오나하마항에 지진 재해 후, 처음 긴급 물자 운반선이 입항

▶ 3월19일 (토)

- 08 : 00 시장이 메시지를 발표 (시내 재해민의 지원에 대해)
- 18 : 30 시장이 코멘트를 발표 (가솔린 확보·공급에 대해)

▶ 3월20일 (일)

- 후쿠시마현과 오나하마 석유(주)의 협력으로 시내 정유소 및 병원에 가솔린과 등유를 공급(~3/26)
- 지적 장애가 있는 33명을 카나가와현에 배로 이송(~4/11)
- 장애인 복지시설등에서 지원 물자 배포를 개시(~4/4)
- 노인 복지시설등에서 지원 물자 배포를 개시(~4/6)
- 이와키시 의사회, 임시 진료소를 개설(~3/21)

▶ 3월21일 (월)

- 13 : 30 시장이 메시지를 발표 (시민들에게 식료품등 배포) → 시민들에게 식료품등 배포를 개시 (~3/28·계6회)
- 조방자동차도로 이와키 츄오 IC ~미토IC의 일반차량 통행금지 해제

▶ 3월22일 (화)

- 종합 이와키 교리츠 병원이, 외래 통상 진료를 재개
- 쓰레기 수집을 일부 재개(가연 쓰레기·주 1회)
- 시내 노선버스, 6 노선이 일출일 운임표대로 운행 재개
- 편의점 일부가 재개(이후 순차적으로 재개)

▶ 3월23일 (수)

- 07 : 12 후쿠시마현 하마도오리 진원으로 하는 M6.0 지진 발생 (본시의 진도5강)
- 07 : 36 후쿠시마현 하마도오리를 진원으로 하는 M5.8 지진 발생 (본시의 진도5강)
- 17 : 30 수도물 측정의 결과, 방사성 요오드가 103벵크렐/kg 검출되어 유아에 대해 수도물 섭취를 제한 (~3/31해제) → 유아에 대한 패트병 식수 배포를 개시 (~3/31)

5 재해로부터 주요 경과

18:55 후쿠시마현 하마도오리를 진원으로 하는 M4.7 지진 발생 (본시의 진도 5강)

21:00 시 수도국, 「급수 복구 계획」 책정·발표

- 시내의 수도 복구율이, 50% 진전
- 피난소 쇼핑 버스 운행을 개시(~ 3/26)
- 항구 스포츠 센터에서 지원 물자 접수를 개시(~ 3/31)

▶ 3월24일 (목)

- 해일 재해 가옥등에 소득 자재 배포 개시(~ 7/22)
- 반에츠 자동차도로 이와키 JCT ~ 니이가타IC의 일반 차량 통행금지 해제

▶ 3월25일 (금)

11:46 내각 관방 장관 기자 회견에서,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 반경 20 ~ 30 km권내의 주민 독립 피난을 재촉함

- 보육소등에 음료수등 배포를 개시(~ 4/7)
- 우편물 취급 재개



상공현장 시찰에 앞서 자위대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는 시장

▶ 3월26일 (토)

11:00 시장이 메시지를 발표 「재해로부터 2주간을 경과

- 요망 활동【정부, 민주당, 자민당 관계】(시민 생활의 안정 (생활 지원, 생활 확보, 거짓정보 피해의 해소))

▶ 3월28일 (월)

- 이재민 증명, 현지 조사를 개시
- 이와키시 의회 동북지방 태평양 바다 지진 대책 본부 설치
- 임시 시장 기자 회견을 개최 (종합 창구의 설치, 주택의 일시 제공)
- 요망 활동【정부·민주당·자민당 관계】(농림 수산물의 거짓정보 피해의 해소)
- FM 이와키에 임시 재해 방송국을 설치, 통상 출력을 20W 에서 100 W로 변경(~ 5/27)
- 시내 38 공립 보육소 가운데, 18 보육소에서 업무를 재개
- 시내 슈퍼, 편의점이 본격 재개

▶ 3월29일 (화)

- 종합 창구를, 시 문화 센터에 개설
- 임시 시장 기자 회견을 개최 (쓰레기 수집 전면 재개, 가정에서 나온 재해 쓰레기의 수락등)
- 시 재해 구조비등, 각종 급부금, 신청 접수 개시

- 일시 제공 주택 입주자의 일차 모집 개시(~ 4/8)
- 오나하마항 재해 후, 첫 민간 대형 석유탱크 입항



시 문화 센터에 설치된 종합 창구

▶ 3월30일 (수)

- 오나하마항 재해 후, 첫 민간 대형 석유탱크 입항
- 츄우오다이 공민관에서 자위대 입욕 서비스 개시(~ 5/30)

▶ 3월31일 (목)

- 피난소에서 영양 상담을 개시

▶ 4월1일 (금)

- 17:31 「동일본 대지진」 명칭이 결정
- 피난소에서 의료 상담 개시
- 요망 활동【정부, 민주당, 자민당, 현 지사 관계】(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 재해의 조기 수습, 거짓정보 피해의 해소 외)
- 조방 자동차도로 이와키 츄오 IC ~ 요즈쿠라 IC의 일반 차량 통행금지 해제

▶ 4월3일 (일)

- 피난소 입욕 버스 운행을 개시(~ 5/28)

▶ 4월4일 (월)

- 시 재해 대책 본부를, 시 문화 센터에 이전
- 생활 복지 자금(긴급 소량 자금)의 특례 대출 제도 접수 개시
- 쓰레기 수집을, 전면 재개
- 이재민 증명, 발행을 개시
- 시 재해 구원 자원봉사 센터 창구를, 시 사회 복지 협의회에 일원화

▶ 4월5일 (화)

- 임시 시장 기자 회견을 개최 (해일에 의해 파괴된 가옥 철거 등)

▶ 4월6일 (수)

- 시립 초등학교 입학식을 실시 (재해 지구등 소중학교에서는 시 문화센터에서 입학을 축하식을 실시)
- 요망 활동【현 지사】(수산업에 대응)

- 요망 활동【원자력 안전·보안원】(방사성 물질 해양 방출)
- 부지내 재해 쓰레기 철거 개시 (~ 7월말)
- 시내 노선버스가, 일부노선을 제외하고 통상 운행 재개

▶ 4월7일 (목)

- 23 : 32 미야기현 앞바다를 진원으로 하는 M7.2 지진이 발생 (본시의 진도 4)
- 23 : 34 기상청이 해일 주의보를 발령 (다음날 00:55해제)
- 시립 유치원 입원식을 실시

▶ 4월8일 (금)

- 임시 시장 기자 회견을 개최(당면의 긴급 고용 대책에 대해)

▶ 4월9일 (토)

- 「힘내요! 이와키 전국 이와키 순회」을 시내5개소에서 개최 (~ 4/10)
- 요망 활동【정부, 민주당, 자민당 관계】(수산업에 대응)
- NPO의 중심으로,나코소 지구 재해 자원봉사 센터 개설 (~ 5/20)

▶ 4월10일 (일)

- 시내 수도가 거의 복구(해일 및 산사태의 재해지구는 제외)
- 보건사등에 의한 해일 피해 지구의 방문 활동을 개시(~ 6/7)

▶ 4월11일 (월)

【동일본 대재해로부터 1개월】



재해대책 본부에서 묵념

- 14 : 46 사이렌 소리와 함께 시내에서 묵념
- 17 : 16 후쿠시마현 하마도오리를 진원으로 하는 M7.0의 지진 발생 (본시의 진도 6약)
- 17 : 18 기상청이 해일 주의보를 발령 (동일18:05해제)
- 18 : 19 다비토지역 이시즈미야자 카이야지역내에서 토사가 붕괴 발생, 가옥이 파괴되고, 구조,구명을 개시
- 19 : 00 시장이 메시지를 발표(본시가 「긴급시 피난 준비 구역」대상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 19 : 30 시 수도국에서, 여진에 의한 단수 및 절수 협력의 안내
- 동일 여진에 의해 시내 약 10 만호가 다시 단수
- 주택 응급수리 제도, 신청 접수를 개시
- JR조방선 일반 열차 이와키역~다카하기역에서 운전 재개
- 동일 여진에 의해 운전 보류

- 동일 여진에 의해 조방자동차도로, 반에즈 자동차도로 통행 금지

▶ 4월12일 (화)

- 14 : 07 후쿠시마현 나카도오리를 진원으로 하는 M6.4의 지진 발생 (본시의 진도 6약)
- 전날 여진에 의해, 시립 초중학교 휴교(~ 4/17)
- 「힘내요! 이와키 전국 일본 순회 (제1탄)」을 도쿄 미나토 구에서 개최 (~ 4/13)
- 조방 자동차도로 이와키 유모토IC~이와키 요즈쿠라IC, 반에즈 자동차도로 이와키 ICT~오노IC의 일반차량 통행금지 해제

▶ 4월13일 (수)

- 08 : 00 다비토지역 이시즈미야자 사이바치지역내에서 토사가 붕괴 발생, 가옥이 파괴되고, 구조,구명을 개시 (~4/16)
- 여진에 의해 운행을 보류 하고 있던 JR조방선 일반 열차의 운전이 재개
- 오나하마항 재해 후, 첫 내항 화물선이 입항

▶ 4월14일 (목)

- 제1회 동일본 대지진 이와키시 의연금 배분 위원회 개최
- 임시 시장 기자 회견을 개최 (일시 제공 주택 제공 개시, 의연금 배분)
- 요망 활동【현 지사】(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 재해의 조기 수습 외)
- 조방 자동차도로 이와키 나코소 IC~이와키 유모토 IC의 일반 차량 통행금지 해제



시장이 다비토지역 피해 현장을 시찰

▶ 4월15일 (금)

- 14 : 00 다비토지구(카이야·카미야마·사이바치·호리고시)에 피난 지시 (4/16 18:00해제)
- 시 의연금, 신청 접수를 개시
- JR반에즈 동선 이와키역~오노니마치역의 통상 운전 재개

▶ 4월16일 (토)

- 일시 제공 주택 (고용 촉진 주택·민간 임대주택) 제공을 개시
- 시 의연금, 배분을 개시 (현내에서 가장 빠른 배분)

5 재해로부터 주요 경과

▶ 4월17일 (일)

- JR조방선 일반 열차 이와키역~요츠쿠라역 운전 재개

▶ 4월18일 (월)

- 본청 시민과 업무물, 아리오스 별관 1층에 이전 (~ 10/14)
- 홍보 이와키 임시호 「힘내요! 이와키 통신」 을 발행
- 시립 초중학교, 수업을 재개
- 요망 활동 【중의원, 정부, 민주당, 자민당】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 재해 조기 수습, 거짓정보 피해의 해소의)



아리오스 별관에 설치한 시민과 창구

▶ 4월19일 (화)

- NPO가 중심이 되는, 오나하마 지구 재해 자원봉사 센터를 개설

▶ 4월20일 (수)

- 요망 활동 【현 지사】 (후쿠시마 제1 원전 재해 조기 수습의)

▶ 4월21일 (목)

- 11 : 00 후쿠시마 제2 원자력 발전 피난 구역이, 반경 10km 권내에서 반경 8km권내로 변경 (12/26해제)
- 시내 수도가 거의 복구 (해일 및 산사태 재해지구는 제외)

▶ 4월22일 (금)

- 00 : 00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 반경 20 km권내를 경계 구역으로 설정
- 09 : 44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 반경 20 km ~ 30km권의 옥내 퇴피 지시 해제, 「계획적 피난 구역」 · 「긴급시 피난 준비 구역」 설정→오가와 · 가와마에 · 히사노하마 · 오히사마치의 옥내 퇴피 지시 해제
- 11 : 00 임시 시장 기자 회견을 개최 (공업제품등 방사선 측정검사 체제등)
- 15 : 45 시장 코멘트를 발표 (본시의 옥내 퇴피 지시 해제)
- 16 : 00 와타나베지역 카미카마도야자 아오야 지구의 일부에 피난 권고 (8/31 15:00해제)
- 시 재해 구조비등 각종 급부급, 지급을 개시

▶ 4월23일 (토)

- 11 : 00 임시 시장 기자 회견을 개최 (옥내 피난구역 해제에 대해)

▶ 4월25일 (월)

- 국민 건강 보험 연금 업무물, 아리오스 별관 4층으로 이전 (~ 10/7)
- 공업제품 잔류 방사선 측정을 개시
- 시내 초중학교에 학교급식 일부를 재개



시 환경 감시 센터에서 공업제품의 잔류방사선 측정

▶ 4월27일 (수)

- 「힘내요! 이와키 전국 일본 순회」을 도내 3개소에서 개최 (~ 4/28)



텐노우즈 아이루역 중앙 광장에서 개최한 순회 (4월27일)

▶ 4월28일 (목)

- 13 : 30 임시 시장 기자 회견을 개최 (일시 제공 주택등 2차 모집)
- JR조방선 요츠쿠라역~히사노하마역의 임시 버스 운행 개시 (~ 5/14)
- JR조방선 특급 열차 이와키역~도쿄역 운전 재개
- 조방자중차도로 요츠쿠라 IC ~히로노 IC 일반 차량 통행 금지 해제

▶ 4월29일 (금)

- 일시 제공 주택 입주자 2차 모집 개시 (~ 5/5)
- 시장 메세지를 발표 (학교 급식에 관한 거짓 정보 피해)

▶ 4월30일 (토)

- 유체 안치소, 폐쇄



해일로 참담할 정도로 피해를 받은 타이라 우스이소 지구 전경. 좌하로 보이는 것은 간신히 침수를 면한 토요마 초등학교
(3월25일 육상 자위대 제8 보병과 부대 제공)

사 진 편

재해상황 ①



쓰나미 해일로 해저가 출현한 히사노하마지역 카네가자와 해안 (3월11일 16:00 쯤 현 소방 방재 항공대 제공)



히사노하마지역 상가에서, 지진, 해일, 직후에 화재가 발생하여, 다음날까지 계속 화재 발생 (좌 : 3월11일 15:50 쯤 이시가와 히르고씨 제공) (아래 : 3월12일 아침 현 소방 방재 항공대 제공)



핫타치 해안 벤텅지마 신사 기둥에 대해일의 위력을 떨치는 모습 (3월11일 15:25 쯤 스즈끼 미치히로씨 제공)



해일이 덮친 다음날 아침의 히사노하마지역 스에츠키 지구 (3월12일 현 소방 방재 항공대 제공)

히사노하마 ~ 요츠쿠라 ~ 신마이코 ~ 누마노우치



밀려 든 해일로 인해, 침수된 요츠쿠라 국도6호
(3월11일 15: 45 쯤 이와키 민보사 제공)



국도 6호를 덮친 해일은, 이와키시 관공서 요츠쿠라
지소 부근까지 침수시켰다
(3월11일 15: 40 쯤 요시다 히로노리씨 제공)



해일이 지나간 후에 「도로역 요츠쿠라항」
(3월11일 17: 25 쯤 미도리가와 타게시씨 제공)



다음날 요츠쿠라항구 근처, 국도 6호까지 배가
올라와 있다 (3월12일 스즈끼 마사루씨 제공)



신마이코 해안 부근의 논에도 해일에 의해 침수된
논지 (3월12일 현 소방 방재 항공대 제공)



신마이코 해안가의 지방 도로는, 지진과 해일의
영향으로, 사방으로 손상을 받았다 (6월5일)

사진속에 오른쪽이 누마노우치내 지구, 왼쪽이
심각하게 해일 피해를 받은 우스이소지구, 앞쪽은
누마노우치항구
(3월12일 현 소방 방재 항공대 제공)



재해상황 ②



지진 재해 다음날 우쓰미소지구. 사진 중앙쪽의 토요마 초등학교는 재난을 피했지만, 좌하의 토요마은 1층 부분이 재해를 받음 (3월12일 현 소방 방재 항공대 제공)

우쓰미소에서 시오야자키등대를 조망. 방파제나 해안가도로는 해일에 의해 파손 (4월1일 사토우 타카유키 제공)



바다의 모습이 바뀌었다. 방파제를 뛰어넘은 해일이 토요마 지구를 덮친다. 거대하고 무서운 자연의 위력, 해일의 공포를 말해 준다 (3월11일 15:40 쯤 스즈키 토시아키 제공)

우스이소 ~ 토요마 ~ 에나 ~ 오리토 ~ 나카노사쿠 ~ 나가사키



사진 중앙의 엷은 녹색의 큰 지붕은 토요마 보육원. 시설은 해일로 인해 파손 되었지만, 그때 있었던 원아와 직원은 재빨리 피난하여, 전원 무사했다 (3월12일 현 소방 방재 항공대 제공)



지진 재해 다음날. 변해 버린 도시를 한없이 응시하고 있는 토요마의 한 주민의 모습 (3월12일 하코자키 유지씨 제공)



진 눈깨비가 내리는 상황 속, 해일의 제1파가 다녀간 사이에 높은 지대로 피난하는 에나 지구의 주민 (3월11일 저녁 이토우 마미씨 제공)



에나 패류조합의 대기실. 이 계절에, 성게나 전복 어선들이 한철로 활기로 가득 넘치는 계절이지만, 지금은 사람의 그림자를 전혀 볼 수가 없다 (6월12일)



해일에 의해 수많은 피해를 받은 수산 가공 공장 오리토 지구 (3월12일 현 소방 방재 항공대 제공)



붕괴한 나가사키의 태평 다리. 안쪽으로 보이는 것이, 나가사키 초등학교. 해일로 1층 부분이 침수 (6월12일)



나카노사쿠 구항구 부근. 지진 재해로부터 3개월 경과하여도, 전복된 배는 그대로 방치된 채로 놓여 있다 (6월12일)

재해상황 ③



오나하마항에도 해일이. 어디까지 수위가 올라 왔을까. 새들도 한번도 본 적이 없는 광경에 미치듯이 날고 있다 (3월11일 16:50 쯤 오나하마 기선저 예망 어협 제공)



지진 재해 다음날 오나하마항구의 부두. 거대한 배가 안착되어 있는 모습. 해일의 위력을 재차 느끼게 한다 (3월12일 사가와 쿠키치씨 제공)



해일로 고립된 「이와키·라·라·유」。 시설은, 11월25일에 재오픈 되었다 (3월11일 15:50 쯤 현 소방 방재 항공대 제공)



후쿠시마 임해 철도 오나하마역 화물 단지. 컨테이너등이 산란하게 분산되어 있는 모습 (3월12일 현 소방 방재 항공대 제공)



크게 파손된 아쿠아 마린 파크의 안벽. 안쪽으로 보이는 아쿠아 마린 후쿠시마는, 7월 15일에 재오픈 (3월25일 사토우 타카유키씨 제공)

오나하마~이와키 산마리나~오바마~이와마~우에다~니시키~나코소



이와키 산마리나의 레저용 보트는, 선창장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모습 (3월11일 15:50 쯤 현 소방 방재 항공대 제공)



▲ 해일은, 오바마지역의 작은 마을도 덮치는 덮치는 모습 (3월11일 15:45 쯤 현 소방 방재 항공대 제공)



◀ 해일의 위력으로 방파제가 도로의 반대측까지 떠내려 가고 있는 이와마지구. 골목은 조방 공동 화력 나코소 발전소. 여기도 재해를 받았지만, 주력 8·9호기가 복구 후 바로, 가동이 정지 하였던 6·7호기에 대해서도 재가동하여, 도쿄 전력과 동북 전력에 전력을 공급 (3월25일 이토우 아케미씨 제공)



사메가와 하구부근의 니시키지역 스카. 해일 재해 받은 가을에는, 코이노보리가 나부끼고, 여느 때처럼 갖매꽃이 피어 있었다 (6월1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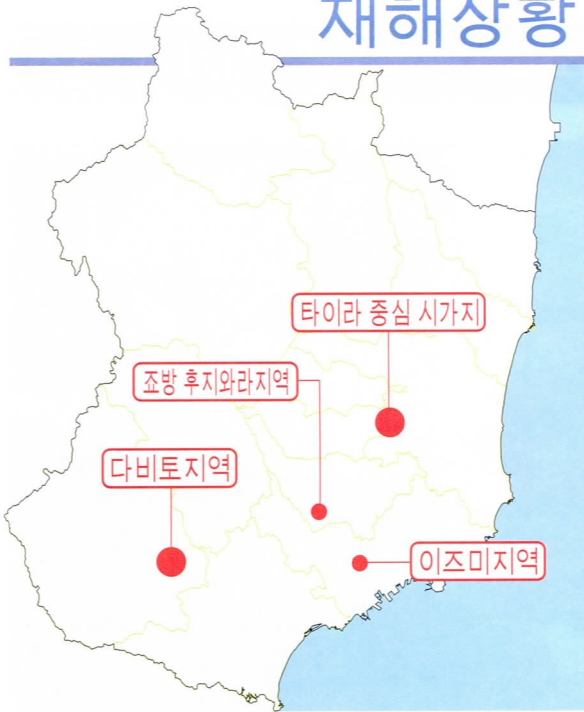
사메가와를 덮친 해일. 하구 부근 지역을 제외한, 우에다지역 및 니시키지역은 제방이 막아 주어서 침수 정도는 경미한 피해로 끝났다 (3월25일 이토우 아케미씨 제공)



나코소지역의 세키타오시로마에 교차점 부근. 여기에서 남쪽 국도 6호는 침수되지 않았지만, 이 근처 까지 해일이 밀려 왔었다. 3차로 우측방향은 구 하마도로 (3월11일 16:00 쯤 조방 국도 사무소 제공)

재해상황 ④

타이라 중심 시가지



지진 발생 직후의 JR이와키 역앞. 안전을 위해 지면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보고 혼란을 엿볼 수가 있다 (3월11일 15:05 쯤 이와키 민보사 제공)



진도 6약의 열진으로 책장등이 넘어지는 등, 큰 재해를 받은 이와키 시약소 본청사. 재해 대책 본부는, 소방본부를 만들지 않을 수 없는 사태로 빠짐 (3월11일 14:55 쯤)



점포안에 있는 상품들이 흩어진 편의점 (3월11일 15:00 쯤 이와키 민보사 제공)



타이라 시가지의 역사적 건물도 파손 (3월20일 월간 리~도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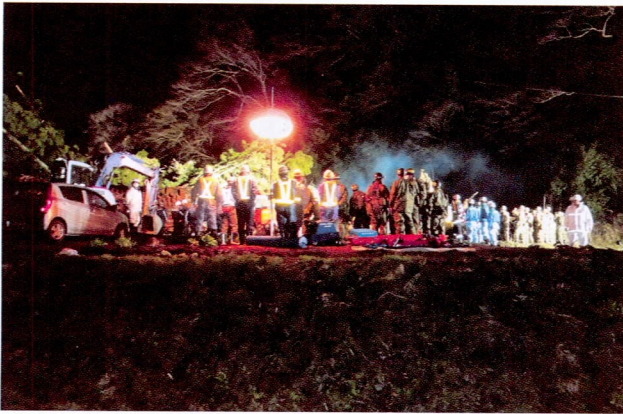
재해 2주일 후 이와키역앞 대거리. 조금씩 거리도 안정을 되찾기 시작하였지만, 물결치는 도로가 아직도 그 날의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3월25일 사토우 타카유키씨 제공)

직하형 지진의 재해 상황

다비토 ~ 이즈미 ~ 조방



다비토지역에는 복수의 단층이 만들어짐. 4월 여진으로 2m 정도의 단차가 생겨 도로가 여기저기 통행금지 발생 (4월13일)



다비토지역 이시즈미 토사 붕괴가 일어나 현장에서 밤새도록 수색을 하는 모습 (4월12일 2:00 쯤)



4월11일 여진 이후, 이즈미지역 조방 탄광 환기 분화구에서 온천이 분출. 화재라고 생각할 정도로 많은 김이 솟아 나는 모습 (6월17일 이와키 민보사 제공)



조방 후지와라 지역내의 주요 지방도로 이와키 이시카와선 부근. 논지가 갈라진 것을 엿 볼수 있다. 간이 보수한 도로는, 색이 바뀌었다 (4월18일 현 소방 방재 항공대 제공)



4월 11·12일 진도 6약의 직하형 여진. 단층이 수면에서 깨어남. 조방 후지와라 지역의 켄토쿠 절경내의토지가 갈라진 상황 (5월2일 시시도 히로시씨 제공)

힘내요 이와키

아키시노노미야 내외분이 이와키시를 방문하셨습니다. 해일 피해를 받은 타이라 토요마 지구를 시찰하여 피해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



시내 각지에서는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어, 다양한 부흥 이벤트를 개최. 「거짓 정보 날려 버리자! 힘내요 요츠쿠라」(오른쪽 이와키 민보사 제공) 4월 16일에, 「건강한 유모토」(위) 8월 2일부터 20일간 개최되었습니다



이와키산 농산물의 직매장등을 실시한 「힘내요! 이와키 전국 일본 순회」 제1탄은 JR신바시 역앞SL광장에서 개최. 이와키시 출신의 학생 자원봉사자 및 이와키시 관계자분들이 응원하러 많이들 오셨습니다



힘든 피난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마음의 여유를 지켜주기 위해, 각 피난소에서는 자원봉사자들에 의한 「그림책 읽어 주기」 등이 행해졌습니다. 아래 사진은 아리오스에 피난한 주민들 (4월26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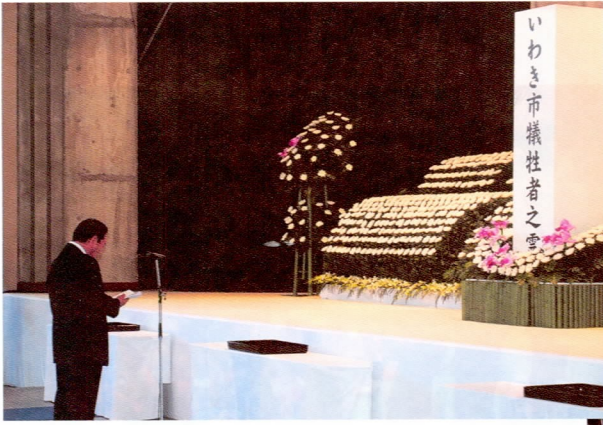
자위대는, 재해 당일부터 시내에 들어가,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구원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5월 23일에는, 육상 자위대 중앙 음악단원이, 유모토 니중학교에서 위문 연주회를 열어, 재해로 지쳐 있는 초등중학생들에게 잊지 못할 선물을 선사하였습니다 (위쪽 사진) ▲



연말에도, 부흥 지원의 이벤트가 많이 행해졌습니다. 12월 2일에는, 「힘내요! 이와키 만담장」이 아리오스 콘서트 홀(왼쪽), 12월4일에는 이와키 메이세이 대학에서 「투혼 축제 in 이와키」(오른쪽)등이 연이어 개최되었습니다. 회장에 찾아온 시민 및 재해민들이, 힘든 일상 생활을 잊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 주변 자치체에서는, 2만명을 넘는 주민이 이와키 시내에서 피난 생활을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버렸습니다. 이와키 뉴 타운(위)에서만 1,000호 가설 주택이 건설되었고, 나라하지역(좌하) 및 나미에지역(우하) 등에서는, 시내에 파견 기관을 설치하였습니다. “ 힘내요! 하마도오리 ”





진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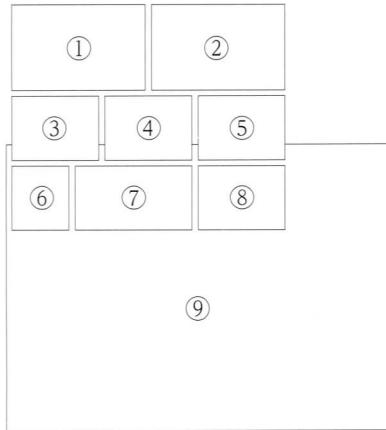
희생되신 분들을 추모하기 위한 합동 추도식이 7월 9일에 시 종합 체육관에서 거행되었습니다. 식에서는, 오가와 지구 어린이의 잔가라 염불이 열리어져 희생분들의 영혼을 위로하였습니다

■ 본지 작성에 협력해 주신 분들 (50 음순:경칭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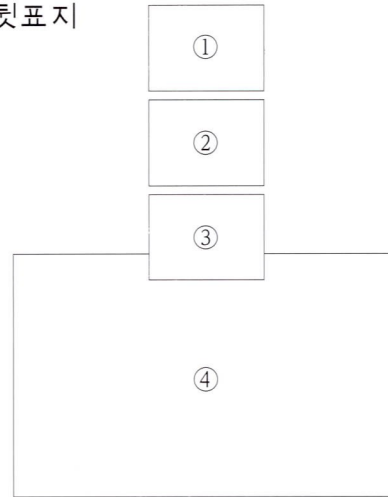
아이벡스에아라인즈 주식회사
 아키타 현 유리혼조시
 이시이 히로코
 이토우 아케미
 이토우 마미
 주식회사 이토요카 타이라점
 이와키 가스 주식회사
 사단법인 이와키 관광지역 만들기 뷰로
 사회복지법인 이와키시 사회복지 협의회
 이와키시 택시사업 협동조합
 주식회사 이와키 민보사
 주식회사 웰컴
 주식회사 NTT도쿄모 동북지사
 FM이와키 (주식회사 이와키시민 커뮤니티 방송)
 오나하마 기선 어업 협동조합
 오나하마 석유 주식회사
 월간 리~도 (주식회사 이와키 채널)
 국토 교통성 기상청
 국토 교통성 동북지방 정비국 이와키 국토 사무소
 국토 교통성 동북지방 정비국 오나하마 항만 사무소
 재단법인 후쿠시마 해양 과학관
 사가와 코우이치
 사토우 타카유키
 죠방 공동 가스 주식회사
 신죠방 교통 주식회사
 스즈키 토시아키
 스즈키 마사루
 스즈키 미치히로
 시시도 히로시
 세키쇼상사 주식회사

전 일본 공수 주식회사
 소프트뱅크 모바일 주식회사
 도쿄도 미나토구
 동부 가스 주식회사 후쿠시마 지사 타이라 사업소
 동부 전력 주식회사 이와키 영업소
 공익사단 법인 토목 학회
 닛산 자동차 주식회사
 하코자키 유우지
 동일본 고속도로 주식회사 동북 지사
 동일본 전신 전화 주식회사 후쿠시마 지점
 동일본 여객 철도 주식회사 미토 지사
 히로시마현 후쿠야마시
 후쿠시마 공항 빌딩 주식회사
 후쿠시마현 이와키 지방 진흥국 현세부
 후쿠시마현 이와키 건설 사무소
 후쿠시마현 오나하마 항만 건설 사무소
 후쿠시마현 후쿠시마 공항 사무소
 후쿠시마현 경찰 본부
 후쿠시마현 소방 방재 항공대
 후쿠시마현 석유 상업 조합 이와키 지부
 방위성 자위대 후쿠시마 지방협력본부 이와키 지역 사무소
 홋카이도 국제 항공 주식회사
 주식회사 마루토
 미도리가와 타케시
 미야자키 현 노베오카시
 주식회사 요쿠베니마루
 요시다 히로노리
 육상 자위대 코리야마 주둔지
 육상 자위대 제 8 보병 연대
 Kouichi Seya

● 앞표지



● 뒷표지



- ① 자위대, 소방단등에 의한 타이라 우스이소에서 수색 활동 (4월1일 : 사토우 타카유키씨 제공)
- ② 시장이 히사노하마지역 재해 현장을 시찰 (3월13일)
- ③ 히사노하마지역 주택가를 덮치는 해일 (3월11일 : 이시이 히로코씨 제공)
- ④ 재해 직후부터 정보를 계속 발신한 FM이와키 (3월11일 : FM이와키 제공)
- ⑤ 시오야자키의 설날 해돋이 (2012년 새해)
- ⑥ 타이라 니초메 상가에서 개최된 「진혼의 대등불 in이와키」 부흥 메세지 (6월11일)
- ⑦ 영업을 재개한 스파리조트 하와이안즈, 대규모 폴리네시아쇼로 앵콜에 보답하는 홀라 걸스 (2012년2월8일)
- ⑧ 아쿠아 마린 후쿠시마 바다표범의 새끼 「희망이라는 이름 기보우」 (7월15일 : (재)후쿠시마 해양 과학관 제공)
- ⑨ 3월 11일 15:45쯤 이와마지구에 덮친 해일 (현 소방 방재 항공대 제공)

- ① 이와키 카이세이 고교 연습선 「후쿠시마 마루」가 실습을 위해 출항 (5월19일 : 이와키 민보사 제공)
- ② 폴 생산을 재개한 닛산 이와키 공장에서 종업원과 일치 단결하는 사장 카루로스 곤씨 (5월17일 : 닛산 자동차(주) 제공)
- ③ 서예가 난가쿠씨 작 「기즈나」의 작품을 들고 있는 토요마 어린이들 (11월14일)
- ④ 「이와키 농작물 이미지 변신을 위한 프로젝트 “보여 주겠습니다! 이와키”」 시내 농업 관계자 1,000명이 논에 집결 (8월20일)

동일본 대재해로부터 1년
이와키시의 기록
2012년 3월11일 발행

기획·편집 이와키시 행정 경영부 홍보과 및 프로젝트 팀
이와키 미래 만들기 센터
발행 이와키시

〒970-8686 후쿠시마현 이와키시 타이라아자 우메모토21번지
TEL 0246(22)1111(대)
URL <http://www.city.iwaki.fukushima.jp>



VEGETABLE OIL INK この印刷物は、環境に優しい、植物性インクを使用しています。